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8-3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 10.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 구 위 원	안 순 권
연 구 위 원	김 필 현
부 연 구 위 원	변 양 규
선 임 연 구 원	김 창 배

< 차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21
3. 노동시장	24
4. 금융시장	30
5. 외환시장	50
6. 해외경제	56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67
1. 대내외 여건	69
2. 경제전망	77
제 III 장 정책과제	95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97
2.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97
〈부록〉 주요 경제지표	105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8
〈표 I-4〉 소비	10
〈표 I-5〉 투자	13
〈표 I-6〉 품목별 수출	15
〈표 I-7〉 지역별 수출	16
〈표 I-8〉 용도별 수입	18
〈표 I-9〉 국가별 · 용도별 수입	19
〈표 I-10〉 최근 경상수지	20
〈표 I-11〉 물가 추이	23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4
〈표 I-13〉 취업자 추이	28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9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30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36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41
〈표 I-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42
〈표 I-19〉 은행의 가계대출	43
〈표 I-20〉 가계신용 추이	44
〈표 I-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46
〈표 I-22〉 주식시장 주요 지표	49
〈표 I-23〉 원/달러 환율	52
〈표 I-24〉 자본 유출입 추이	55
〈표 I-25〉 미국의 경제지표	59
〈표 I-26〉 일본의 경제지표	61
〈표 I-27〉 EU의 주요 경제지표	62

〈표 I-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64
〈표 I-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65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70
〈표 II-2〉 세계 주요 기관의 최근 유가 전망	72
〈표 II-3〉 2009년 반기별 성장률	78
〈표 II-4〉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81
〈표 II-5〉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83
〈표 II-6〉 2008~2009년 국내경제전망	92
〈표 II-7〉 2008년 조세개편의 경제적 효과	94
〈표 III-1〉 주택건설 실적 및 예상수요	101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7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10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2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4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7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22
<그림 I-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27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32
<그림 I-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	34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	35
<그림 I-12>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 악화	36
<그림 I-13> 스왑베이스스(CRS-IRS) 추이	38
<그림 I-14> 국고채-CRS 스프레드 추이	39
<그림 I-15> 주가지수 추이	48
<그림 I-16>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51
<그림 I-17>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53
<그림 II-1> 최근 소비 및 투자 심리 추이	75
<그림 II-2>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76
<그림 II-3> 소비자 기대지수	79
<그림 II-4>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0
<그림 II-5>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84
<그림 II-6> 국고채 및 통안채 만기도래 규모	88
<그림 II-7> 재정거래 유인 재확대	89
<그림 II-8> 월별 외국인 채권 순매수 규모	89
<그림 II-9> 경상·자본수지와 원/달러	91

I. 대내외 여건

■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의 장기화가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둔화 전망
 - IMF(2008년 9월 전망): 2008년 4.0% ⇒ 2009년 3.7%
- 국제유가는 국제수요의 위축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
 -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공급라인의 차질이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금융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로 원유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 원유 최대수요국인 미국의 1~8월 기간 원유소비가 4% 감소했으며, 이는 26년 내 최고의 감소율임.
 - OPEC은 세계경기 둔화에 기인하여 올해와 내년의 원유수요 전망을 각각 12만 bpd, 14만bpd 하향수정
-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미국 주택시장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되고,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 부실의 정리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에 따라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 전망

■ 대내여건

- 미 금융시장 불안 여파, 상당기간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안전자산 확보 경향에 의한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환율변동성 확대
 - 글로벌 자금경색에 따른 자금유출로 국내 증시 하락국면 불가피
 -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강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위축 우려

- '2008년 세제개편', 2009년 경제 활성화 기대
 - 9월 1일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감세
 -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감세안(5년간 21조3천억 원)으로 투자 촉진,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내년 중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지난 9월 금통위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내수저조, 미국경기 부진 등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모멘텀 회복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
 -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로 미국 연방기금금리 2.00%p에 비해 3.25%p 높은 점도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Ⅱ. 2008~2009년 경제전망

1. 2008년 수정전망

■ 2008년 성장률: 2007년(5.0%)에 비해 0.8%p 둔화된 4.2%로 전망

-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국내 정치사회 불안으로 새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이 분산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데 기인
- 성장률은 기존(2008년 6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지만 내수와 수출부문 간의 최종수요 부문 간의 조정이 있었음.
 - 내수부문은 물가상승 및 금융불안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반영되어 하향조정
 - 순수출부문은 하반기 중 수출호조, 수입둔화(실질원화기준)를 반영, 상향조정

〈표 1〉 2008년 성장률 전망조정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8년		
	3/4	4/4	연간
성장률	3.7 ←(3.7)	2.8 ←(3.0)	4.2 ←(4.2)
민간소비	2.3 ←(3.1)	2.1 ←(2.9)	2.5 ←(3.2)
건설투자	0.5 ←(0.9)	-0.6 ←(1.9)	-0.6 ←(0.4)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포함)	1.6 ←(6.5)	1.8 ←(4.9)	1.8 ←(3.4)
수출(재화+서비스)	11.2 ←(9.6)	9.3 ←(6.6)	11.1 ←(9.8)
수입(재화+서비스)	9.2 ←(9.4)	7.8 ←(8.3)	8.7 ←(9.1)

주: () 안의 수치는 기존(전망시점: 2008년 6월) 전망치

2. 2009년 경제전망

■ 실질GDP, 2008년 4.2% ⇒ 2009년 3.8% 성장

-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특히 수출 부문 둔화 전망
 - 반기별로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안정,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

〈표 2〉 2009년 반기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1	4.5	3.8
민간소비	2.1	2.8	2.4
건설투자	-0.7	1.2	0.4
설비+무형고정자산	2.0	3.7	2.9
수출(재화+서비스)	7.7	7.3	7.5
수입(재화+서비스)	6.5	5.8	6.2

자료: 통계청

- 민간소비 증가율, 2008년 2.5% ⇒ 2009년 2.4%
 - 고용사정 악화, 가계대출 부담 증가에 국제금융불안의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2%대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 증가율, 2008년 -0.6% ⇒ 2009년 0.4%
 - 공공부문 투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전반적인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침.
-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투자 포함) 증가율, 2008년 1.8% ⇒ 2009년 2.9%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등이 회복세를 예고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회복 지연 전망

■ 경상수지 소폭 개선, 2008년 100억 달러 적자 ⇒ 2009년 58억 달러 적자

- 200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1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09년에는 유가하락 및 1,100원대의 고환율 지속 등으로 적자 폭 축소 전망
 - 유가하락 → 수입금액 감소 → 상품수지 개선
 - 고환율 지속 → 여행 등 서비스수지 소폭 개선

■ 수출(BOP 기준, 달러)증가율 둔화, 2008년 22.2% ⇒ 2009년 12.8%

- 미국발 금융불안의 지속과 이에 따른 세계수요 감소로 우리 수출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이다
 - 단, 수출지역 다변화, 일부제품의 경쟁력 우위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2008년 4.9% ⇒ 2009년 3.3%

- 국제원자재 및 유가 상승의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되면서 2008년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5.6%, 연간 4.9%를 기록할 전망이다
- 내년 100달러 미만의 유가 안정세 전망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3%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 단, 국제금융불안에 따른 원/달러 환율 추이가 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소폭 하락, 2008년 6.7% ⇒ 연간 6.6%

- 시장금리는 올 4/4분기 평균 7.0%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하락세를 보여 평균 6.6%에 이를 전망이다
 - 내년 중 경기둔화 심화, 물가상승 압력의 완화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금리의 하락세 등의 영향

■ 원/달러 환율 상승, 2008년 1,157원/달러 ⇒ 2009년 1,170원/달러

- 글로벌 신용경색, 수출둔화 등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2007년에 비해 상승
 -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중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경상수지 적자 개선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이 전망됨.

〈표 3〉 2008~2009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5.0	5.8	4.8	3.7	2.8	4.2	3.8
전기비(계절조정, %)		0.8	0.8	0.4	0.7		
민간소비	4.5	3.4	2.3	2.3	2.1	2.5	2.4
건설투자	1.2	-1.2	-1.0	0.5	-0.6	-0.6	0.4
설비+무형고정자산	7.4	2.1	1.8	1.6	1.8	1.8	2.9
수출(재화+서비스)	12.1	11.7	12.0	11.2	9.3	11.1	7.5
수입(재화+서비스)	11.9	9.2	8.9	9.2	7.8	8.7	6.2
소비자물가	2.5	3.8	4.8	5.7	5.4	4.9	3.3
경상수지(억 달러)	59.5	-52.1	-1.4	-51.7	5.1	-100.1	-58.0
상품수지(억 달러)	294.1	-12.2	57.2	12.6	61.5	119.1	166.8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1,028.8	1,182.9	1,165.5	1,253.0	4,630.2	5,224.2
증가율(%)	14.2	19.0	27.3	24.2	18.5	22.2	12.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1,041.0	1,125.7	1,152.9	1,191.5	4,511.1	5,057.4
증가율(%)	15.5	29.4	31.0	37.0	20.3	29.0	12.1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39.9	-58.6	-64.3	-56.4	-219.2	-224.8
환율(원/달러, 평균)	929.2	956.9	1,018.0	1,062.6	1,190.0	1,056.9	1,170.0
회사채수익률(3yrs, AA-)	5.7	6.4	6.3	7.2	7.0	6.7	6.6
실업률(%)	3.2	3.4	3.1	3.1	3.2	3.2	3.3

3. '2008년 세제개편' 효과의 추정

■ '08년 세제개편의 '09년 기준 세수효과는 약 11조7천억 원(기획재정부 9월 1일)

- 경제적 효과의 개괄적인 추정 방법
 - 소득세(법인세 제외) 등의 효과: 총 11조7천억 원 중 법인세(2조8천억 원)를 제외한 약 9조 원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 효과
 - ⇒ 민간소비 함수의 설명변수인 세입부분에서 차감하여 추정
 - 법인세 효과: 낮은 세율(현행 13%)은 내년 중 2%p 인하되지만 높은 세율(현행 25%)은 1년 연기되는 점을 감안
 - ⇒ 설비투자함수에서 법인세율을 1%p 낮추어 추정

■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2009년 성장률, 기본전망 대비 약 0.4%p 상승
- 소비자물가는 약 0.2%p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약 36억 달러 악화
- 취업자 수는 약 4만5천 명 증가

〈표 4〉 '2008년 세제개편' 효과를 반영한 2009년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9년 성장률 전망				
	기본전망 (A)	세제개편 효과(B), %p			(A)+(B)
		법인세 외 감세 9조 원	법인세율 인하(1%p)	전체	
GDP(%)	3.8	+0.2	+0.2	+0.4	4.2
민간소비(%)	2.4	+0.7	+0.1	+0.8	3.2
건설투자(%)	0.4	+0.1	+1.0	+1.1	1.5
설비+무형고정자산(%)	2.9	+0.1	+2.9	+3.0	5.9

주: 총 11조7천억 원 중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 등의 감세 9조 원은 민간소비함수에 반영하고 법인세 효과는 법인세율을 1%p 낮추어 투자함수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정

Ⅲ. 정책과제

1. 현 상황의 인식

-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
⇒ 내수활성화를 통한 수요기반 유지와 고용창출이 절실
- 향후 경제정책 우선순위: 내수기반 확충
 - 적극적인 감세정책, 금리인하
 - 비수도권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병행 등

2.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 거시 및 금융부문
 - 9·1 감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9·1 감세안은 성장률을 약 0.4%p 높이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
 - 물가상승 압력 완화되는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 필요
 - 금융불안으로 세계경제침체 심화되면 금리인하 시기 빠를수록 바람직
 -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 역점
 - 정책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중요
 - 시장안정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 규제완화

- 비수도권 SOC 사업(예: 새만금)과 병행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추진
 -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모형을 구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병행하는 전략적 선택 필요
- 인위적 수급억제정책을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 수요의 중심인 도심 및 도시근교 위주의 공급 확충 유도
 - 세제 및 대출규제 개편도 고려

■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임금상승 억제, 고용보호 완화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
 - 고임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초래
 -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은 취약계층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
- ⇒ 고용총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법의 전면 개편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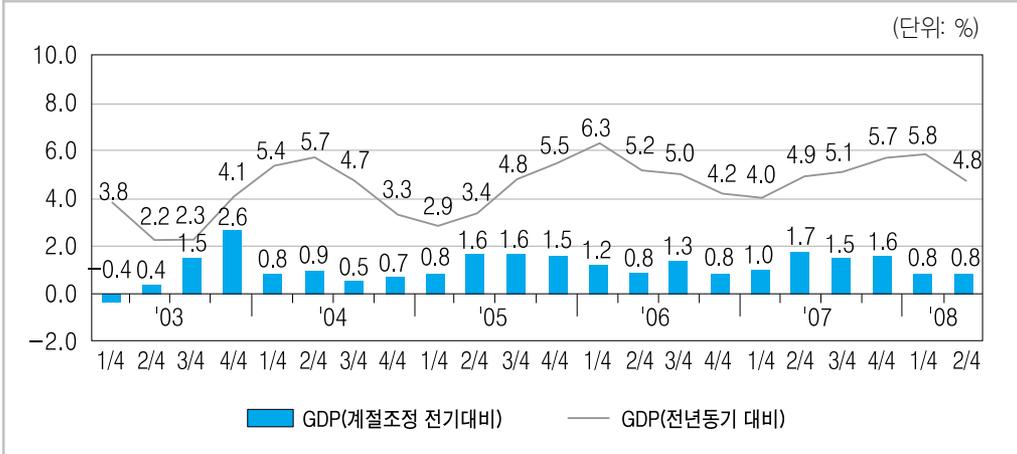
■ 2/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는 1/4분기에 이어 여전히 부진

- 2008년 2/4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은 0.8%로 1/4분기와 같은 수준이며 2006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 계절조정 전기비: 1.6%('07년 4Q) → 0.8%('08년 1Q) → 0.8%(2Q)
 - 전년동기비 실질GDP 성장률은 1/4분기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세에서 2/4분기 감소세로 반전: 5.7%('07년 4Q) → 5.8%('08년 1Q) → 4.8%(2Q)

- 2008년 2/4분기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세이나 나머지 항목들은 증가세로 반전
 - 민간소비는 계절조정 전기비 0.2% 감소하여 2004년 1/4분기 이후 최저, 전년동기 대비 역시 2.4% 증가에 그쳐 3분기 연속 증가 폭 감소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의 감소세 확대에 의해 계절조정 전기대비 1.0%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계절조정 전기대비 0.9% 증가
 -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기계 및 전자기기의 회복에 힘입어 계절조정 전기대비 4.1% 증가, 1/4분기 감소세에서 반전
 - 총수입 역시 농수산물 수입의 확대에 힘입어 계절조정 전기대비 4.3% 증가

-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증가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이에 따라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 역시 2/4분기 0.4%p에 머물렀다.
 -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2.6%p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여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0.4%p에 불과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	1.0	1.7	1.5	1.6	5.0	0.8	0.8
민간소비	1.6	0.9	1.3	0.8	4.5	0.4	-0.2
건설투자	-0.3	-1.2	0.2	1.2	1.2	-1.4	-1.0
설비투자	4.5	1.6	-1.8	2.1	7.6	-0.4	0.9
수출(재화와 서비스)	4.0	3.8	1.3	7.0	12.1	-0.7	4.1
수입(재화와 서비스)	4.9	4.6	-1.8	8.8	11.9	-2.3	4.3

자료: 한국은행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p)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내수	1.6	1.3	-0.6	2.3	3.6	0.2	0.4
민간소비	0.8	0.4	0.6	0.4	2.2	0.2	-0.1
건설투자	0.0	-0.2	0.0	0.2	0.2	-0.2	-0.1
설비투자	0.5	0.2	-0.2	0.2	0.9	0.0	0.1
수출(재화와 서비스)	2.3	2.3	0.8	4.2	7.0	-0.4	2.6
순수출	0.0	0.0	1.7	-0.1	1.3	0.7	0.4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 제조업 생산 증가세 감소, 재고는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노사분규에 의한 자동차 생산의 지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2/4분기에 9.0% 증가에 이어 7월에도 8.8%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경기침체 및 조업일수 감소로 1.9% 증가에 그쳐 11개월 만에 최저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은 7월 전년동월 대비 17.5% 증가를 보여 제조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8월에는 7.0% 증가에 그쳐 증가세 감소 국면
 - 특히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은 전년동월 대비로 7월에 22.8%, 8월에 18.3% 증가하여 제조업 생산의 증가를 주도
 - 반도체 및 부품은 7월 전년동월 대비 17.4% 증가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2.3% 감소하였고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5.5% 증가에 그치고 전월대비로는 5.6% 감소
 - 2/4분기 0.7%의 감소세를 보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7월 다시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8월에는 2.9% 증가에 그쳐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7월 전년동월 대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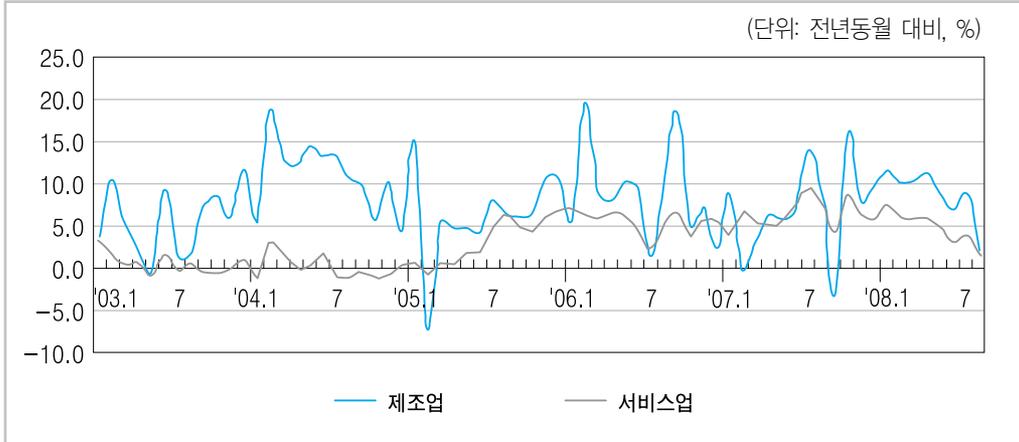
감소하였고 8월에는 8.5% 감소하여 감소세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높은 증가세 유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1.6%p 증가세에서 2/4분기 0.2%p 증가세로 하락한 뒤 7월, 8월 각각 0.8%p 및 2.3%p 감소로 감소세 확대
 - 반도체 및 부품(7월 90.5%, 8월 83.0%)의 급격한 재고 증가로 제조업 전체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년동월 대비로 7월 14.8%, 8월 14.5% 증가

■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는 대부분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둔화

- '08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에 그쳤고 7월 3.9%, 8월 1.6% 증가로 부진 가속
 - 전년동기비: 6.3%('08년 1Q) → 4.6%(2Q) → 3.9%(7월) → 1.6%(8월)
-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 증가세 둔화
 - 금융 및 보험업은 전년동월 대비로 7월 9.3%, 8월 7.0% 성장하여 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하락: 14.8%('08년 1Q) → 9.9%(2Q) → 9.3%(7월) → 7.0%(8월)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월 5.7%, 8월 5.2%)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07년 3/4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
 - 숙박 및 음식점업(1.8%), 오락·문화·운동업(4.2%)의 생산 증가가 8월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나머지 업종의 생산증가는 하락세
 - 부동산 및 임대업(7월 -6.3%, 8월 -14.8%)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짐.

<그림 1 -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3> 제조업과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제조업 전체	4.0	6.3	6.1	11.2	7.0	10.5	9.0	8.8	1.9
중공업	4.6	7.1	7.9	12.6	8.2	12.6	11.1	9.7	3.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2.3	7.7	18.8	25.3	14.0	31.9	28.4	17.5	7.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3.3	11	4.3	8.6	9.3	2.3	-0.7	6.4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2	8.5	6.6	6.5	5.4	4.8	2.4	-4.3	-8.5
경공업	1.3	2.8	-1.5	4.7	1.8	1.5	-0.5	4.4	-4.6
제조업 재고지수 증감(%)	4.9	3.9	2.6	5.7	4.3	9.0	16.6	14.8	14.5
평균가동률 증감(%p)	-1.6	1.2	1.1	0.9	2.0	1.6	0.2	-0.8	-2.3
서비스업 전체	5.4	6.1	7.2	6.8	6.4	6.3	4.6	3.9	1.6
도소매업	4.3	3.7	4.2	5.2	4.3	3.8	2.5	5.6	3.8
숙박 및 음식점업	2.0	2.6	2.2	2.9	2.4	3.1	1.8	0.7	1.8
운수업	6.6	5.5	8.4	8.0	7.1	7.6	8.0	5.4	0.7
통신업	3.1	2.9	2.3	6.3	3.7	3.9	4.2	5.7	0.5
금융 및 보험업	9.5	16.3	18.3	19.5	16	14.8	9.9	9.3	7.0
부동산 및 임대업	6.9	2.0	6.6	-3.5	2.7	5.8	2.8	-6.3	-14.8
사업서비스업	5.3	6.7	7.0	7.4	6.6	5.0	3.5	4.9	0.7
교육 서비스업	3.0	2.5	2.5	1.4	2.3	3.3	2.2	-0.7	-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3	9.0	9.2	7.4	8.5	6.2	6.9	5.7	5.2
오락·문화·운동	5.5	6.4	7.5	5.7	6.4	4.1	1.6	-0.3	4.2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1.0	0.1	0.7	1.0	0.7	2.0	1.1	0.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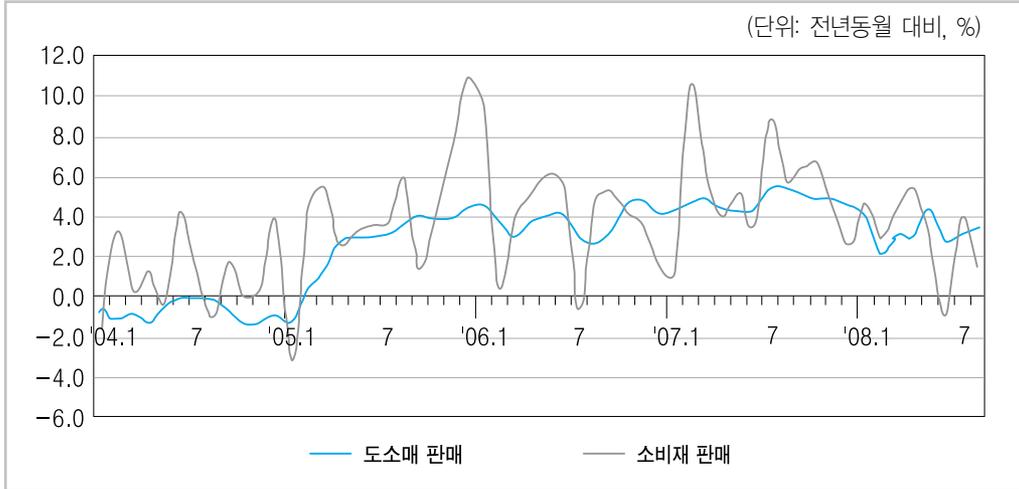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소비

■ 소비 증가세는 2/4분기 및 7, 8월에도 여전히 부진

- 도소매 판매와 소비재 판매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구재 소비가 급감하고 비내구재 소비도 여전히 부진
 - 도소매 판매: 4.8%('07년 4Q) → 4.0%('08년 1Q) → 3.3%(2Q) → 3.1%(7월) → 3.5%(8월)
 - 소비재 판매: 4.5%('07년 4Q) → 3.8%('08년 1Q) → 2.5%(2Q) → 3.9%(7월) → 1.5%(8월)
 - 7월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위주로 한 내구재 판매 증가를 중심으로 소비재 판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는 감소하였고 8월에는 감소세로 전환: 8.2%('08년 1Q) → 7.6%(2Q) → 7.1%(7월) → -3.9%(8월)
 - 가정용 직물 및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소비는 7, 8월에 회복세: 5.4%('08년 1Q) → -1.6%(2Q) → 3.9%(7월) → 9.5%(8월)
 - 비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는 '08년 부진 지속: 1.5%('08년 1Q) → 1.6%(2Q) → 2.0%(7월) → 1.6%(8월)
- 업태별 경우 백화점을 제외하고 7월 매출 증가율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
 - 대형마트 및 전문상품소매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세는 7월의 약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둔화
 - 대형마트: 7.3%('08년 1Q) → 3.2%(2Q) → 4.5%(7월) → 1.2%(8월)
 - 전문상품소매점: 1.6%('08년 1Q) → 0.1%(2Q) → 1.5%(7월) → -1.7%(8월)
 -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로 1/4분기 및 2/4분기 각각 4.3%, 3.7% 증가에 그쳤으며 7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8.5%로 증가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도소매 판매	4.6	4.3	5.3	4.8	4.7	4.0	3.3	3.1	3.5
소비재 판매	5.7	4.2	7.1	4.5	5.3	3.8	2.5	3.9	1.5
내구재	15.7	12.2	10.1	6.9	10.8	8.2	7.6	7.2	-3.9
준내구재	3.6	2.2	3.2	2.9	2.6	5.4	-1.6	3.9	9.5
비내구재	2.3	1.7	7.1	4.0	3.5	1.5	1.6	2.0	1.6
백화점	-2.0	-1.3	3.2	2.8	0.8	4.3	3.7	-0.7	8.5
대형마트	9.8	8.5	12.1	4.4	8.7	7.3	3.2	4.5	1.2
기타무점포판매점	-6.0	-5.7	-1.1	4.0	-2.3	10.7	7.6	7.7	-0.2
전문상품소매점	6.4	4.7	7.0	4.4	5.6	1.6	0.1	1.5	-1.7

자료: 통계청

(4) 투자

■ 설비투자 및 국내기계수주의 약한 회복세 꺾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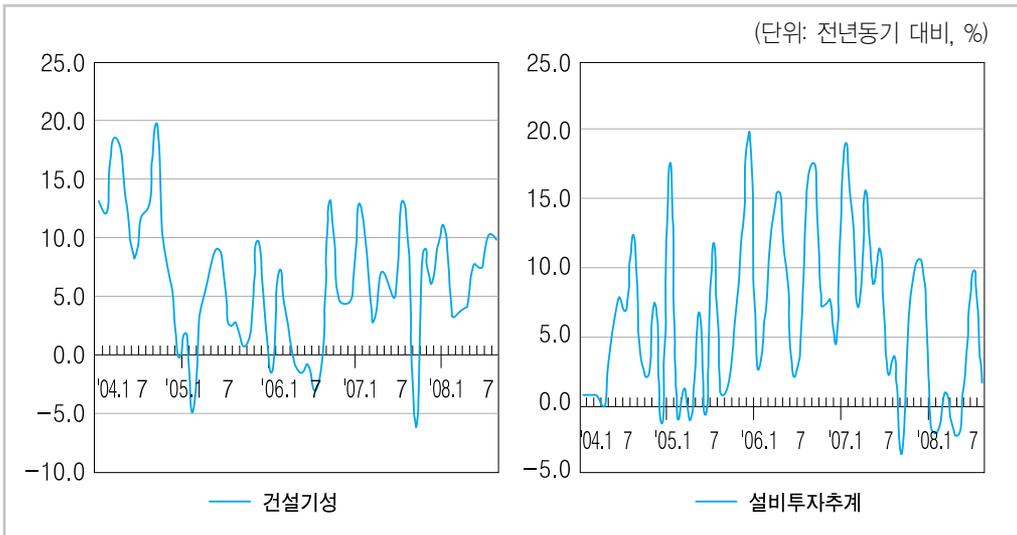
- 설비투자추계는 7월 운수장비 투자 증가에 의해 '08년 1/4분기 감소세에서 회복하였으나 8월 운수장비 투자의 급감으로 회복세가 꺾임.
 - 설비투자추계는 '08년 1/4분기 0.9% 감소에서 2/4분기 0.1% 증가, 7월 9.9% 증가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 1.6% 증가에 그쳐 회복세 상실
 - 운수장비투자는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였고 7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2.3% 증가하여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8월 18.8% 감소로 전체 설비투자의 부진을 주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불변 기준)는 7월 민간부문 비제조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8월 전 부문의 부진으로 1.7%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2/4분기 8.8% 증가에서 7월 20.7%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8월 1.7% 감소로 급감
 - 공공부문 기계발주는 공공운수업, 중앙정부의 발주 감소로 2/4분기 83.4% 증가에서 7월 5.3% 증가로 급감하였고 8월에는 24.3% 감소하여 부진이 심화
 - 민간부문 기계발주는 운수창고통신업의 발주 증가에 의해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에서 7월 21.8% 증가로 회복하였으나 8월 1차금속제조업의 수주부진으로 0.4% 감소
 - 제조업 및 비제조업부문 기계 발주는 2/4분기 부진서 7월에 잠시 회복하였으나 8월에 다시 부진

■ 건설기성은 약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건설수주의 감소세 지속

- 국내건설기성(경상)은 민간부문의 회복에 의해 2/4분기 6.5% 증가에서 7월 10.2%, 8월 10.0% 증가로 회복
 - 국내건설기성: 5.8%('08년 1Q) → 6.5%(2Q) → 10.2%(7월) → 10.0%(8월)
 -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07년 4/4분기 이후 증가세 감소에서 반전하여 회복: 2.9%('08년 1Q) → 4.8%(2Q) → 10.1%(7월) → 7.1%(8월)

- 공공부문 건설기성은 2/4분기까지 부진하였으나 8월에 약간 회복: 6.9%('08년 1Q) → 3.5%(2Q) → 3.5%(7월) → 8.5%(8월)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은 건설부문의 실적 저조로 7월 전년동월 대비 13.0% 감소하였고 8월에도 7.6% 감소
 -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1/4분기 및 2/4분기 각각 20.0%, 18.6% 증가에서 7월 8.8% 감소로 급락한 뒤 8월 11.2% 증가로 회복
 -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지속적으로 부진하여 1/4분기 및 2/4분기 각각 15.0%, 5.9% 감소하고 7월 및 8월 각각 8.1%, 10.5% 감소
 - 공중별로 보면 건축부문의 부진이 심각하여 전년동월 대비 7월 11.3% 감소하고 8월에는 39.5% 감소하여 감소세 확대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추계(불변)	12.8	11.9	0.7	9.2	8.6	-0.9	0.1	9.9	1.6
국내기계수주(불변)	16.1	7.4	14.7	29.9	17.0	25.3	8.8	20.7	-1.7
공공부문	12.1	-23.5	-15.2	8.3	-4.0	8.8	83.4	5.3	-24.3
민간부문	16.4	10.5	18.8	33.7	19.6	25.9	5.9	21.8	-0.4
제조업	8.3	5.8	28.8	58.0	24.3	40.2	-4.1	12.3	1.2
비제조업	25.0	15.4	9.3	10.0	15.0	11.8	16.3	31.5	-1.9
건설기성액(경상)	7.9	6.0	4.4	8.0	6.6	5.8	6.5	10.2	10.0
공공부문	21.1	12.2	3.0	2.8	8.4	6.9	3.5	3.5	8.5
민간부문	3.1	2.3	3.6	8.4	4.5	2.9	4.8	10.1	7.1
민자	12.0	30.0	34.3	48.9	33.2	53.7	49.9	48.9	53.3
건설수주(경상)	26.3	26.3	-5.6	29.5	19.3	-3.9	-6.1	-13.0	-7.6
공공부문	49.3	21.2	7.3	47.2	34.2	20.0	18.6	-8.8	11.2
민간부문	21.8	17.0	-12.9	28.6	13.1	-15	-5.9	-8.1	-10.5
민자	-64.3	683.4	62.5	-21.8	42.4	279.8	-66.2	-24.5	-39.6

자료: 통계청

(5)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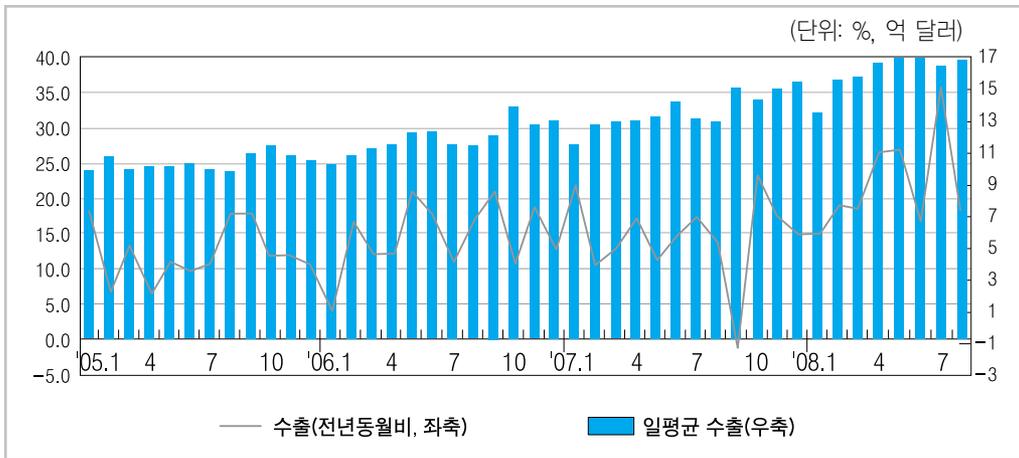
■ 수출증가세 호조 지속 중이나 최근 들어 상승폭이 축소

- 올해 상반기 주력산업의 호조로 20.5%의 증가세를 기록한 수출은 최근 들어 국제 경기의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6월 중 수출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4월 26% → 5월 27% → 6월 17%, 전년동월 대비),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 지속으로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5% 증가를 기록함.
 - 7월에도 주력품목의 호조와 신흥자원부국의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36%의 높

은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은 8월 들어 해외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19%로 크게 둔화됨.

-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도 6월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6월 17억 달러 → 7월 16억4천만 달러 → 8월 16억6천만 달러)

◁ 그림 1-5 ▷ 최근수출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 품목별 수출은 석유와 선박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으나 8월 들어 그 폭이 소폭 감소되었고,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부문은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반도체는 최근 들어 DRAM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수요감소 등으로 7월 이후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됨.¹⁾
 - 자동차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와 자동차 3사(현대, 기아, GM대우)의 부분파업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무선통신기기는 아시아와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 증가 등에

1) D램 평균 가격추이(\$/개, DDR2 512M): ('07. 1)5.69 → (7)2.16 → (8)2.02 → (9)1.57 → (10)1.31 → (11)1.01 → (12)0.86 → ('08. 1)0.91 → (2)0.97 → (5)1.04 → (7)1.98 → (8, 29)1.65
Nand Flash 월평균 가격추이(\$/개, MLC 8G): ('07. 1)7.78 → (12)4.27 → ('08. 2)3.07 → (3)2.71 → (5)3.26 → (7)2.29 → (8,29)1.76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경기의 둔화 영향으로 그 폭은 소폭 둔화되고 있음.

- 컴퓨터는 프린터, 모니터, 본체 등 모든 부문에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은 LNG선과 대형컨테이너 등의 고가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 들어 석유시추선과 드릴십과 같은 석유관련 장비선박의 수주가 늘면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 석유제품은 고유가로 인한 제품단가 상승과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우 수요 증가로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

〈표 1-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1~9.24
수출 전체	13.8	14.4	14.6	14.1	9.4	18.2	14.1	17.3	23.2	36	18.7	15.1
반도체	48.1	24.6	20.8	4.1	9.4	-11.2	4.5	-15.6	2.6	-5.9	-12.9	-12.0
자동차	13.4	11.6	3.4	20.2	18.8	11.4	13.3	8.7	-0.2	-5.1	-16.7	-43.8
무선통신기기	-7.4	-1.7	-0.3	9.2	10.1	31.0	12.7	29.0	30.6	22.9	19.9	20.5
컴퓨터	-9.6	-10.9	-4.5	12.4	18.3	13.9	9.8	5.4	-12.3	-25.4	-29.2	-36.2
선박	41.0	24.8	30.5	40.8	5.3	19.9	25.6	20.2	22.5	183	146.2	87.0
석유제품	2.1	32.8	20.8	9.6	-8.2	59.1	17.5	64.0	101.6	141.5	84.4	109.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로는 ASEAN지역으로의 수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의 수출이 최근 들어 성장세가 큰 폭 둔화되고 있음.

- 대중국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4분기 33.8%, 7~8월 중 25.6%의 증가세를 기록함.
-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산업 전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2/4분기 17.4% 증가했으나, 7~8월 중 상승세가 14.6%로 소폭 둔화됨.
- 대미국 수출은 2/4분기에 5.5%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 분기(-2.9%)의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으나 7~8월 중 증가세가 5.3%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대EU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전기에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대ASEAN 수출은 2/4분기 38.4%, 7~8월 중 63.8%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1-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1~9.24
중국	12.2	18.9	14.4	15.6	23.0	18.0	20.7	33.8	30.4	20.7	7.3
일본	10.4	-1.6	-1.5	-6.9	7.2	-0.6	12.4	17.4	23.8	5.3	6.6
미국	4.5	11.0	7.8	-4.1	9.6	6.0	-2.9	5.5	9.6	1.0	2.2
ASEAN	16.9	27.4	25.3	7.4	25.1	20.8	34.7	38.4	83.4	44.2	4.2
EU	11.0	14.6	17.3	13.0	17.0	15.5	15.8	6.5	12.4	6.0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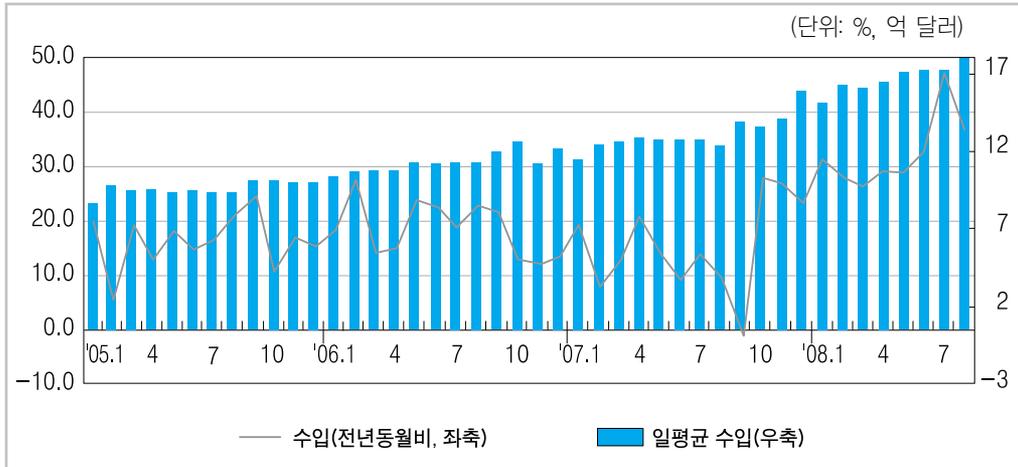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수입

■ 수입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상승세가 큰 폭 확대되었으나 8월 들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감소세로 전환됨.
 - 수입증가율: 1/4분기 28.3% → 2/4분기에도 30.1% → 7~8월 42.1%
 - 이에 따라 일평균 수입금액도 1/4분기 15억8천만 달러, 2/4분기 16억9천만 달러, 7~8월 중 17억7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

◁ 그림 1-6 ▷ 최근 수입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 용도별 수입은 전 부문에 걸쳐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8월 들어 그 폭이 둔화되는 모습
 - 원자재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큰 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원유 도입단가 하락과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²⁾
 - 자본재 수입은 무선통신기기 부품과 액정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2/4분기 14% 증가했으나 8월 들어 관련산업의 수출 둔화로 7.9%의 증가세 기록
 - 소비재 수입은 농산물과 승용차를 중심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됨.

2) 원유 도입단가: 상반기 100.1\$/bbl → 7월 133.9\$/bbl → 8월 127.6\$/bbl

<표 1-8>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1~9.24
수입총액	18.4	13.4	14.7	7.3	25.9	15.3	28.3	30.1	47.2	37.0	45.5
원자재	22.8	13.0	15.1	8.1	29.0	16.4	39.7	41.5	66.3	58.2	69.9
자본재	11.7	12.7	16.5	5.1	22.8	14.3	13.1	14.0	20.6	7.9	16.0
소비재	19.9	21.3	14.7	11.8	22.1	17.5	18.5	18.6	20.3	8.8	4.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국별로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그 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대일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2/4분기 14.9%, 7~8월 중 2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대중국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추세
 - 대미국 수입은 2/4분기 6.6%, 7~8월 중 10.5%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자본재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임.

〈표 1-9〉 국가별 ·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일 본	수입총액	7.3	9.2	7.9	1.5	14.6	8.3	13.8	14.9	30.2	13.4
	원자재	15.7	16.6	13.3	5.4	16.0	12.7	21.0	25.3	34.6	19.6
	자본재	2.0	9.3	12.1	0.1	14.3	9.0	7.1	6.0	25.6	8.0
	소비재	9.2	-1.2	1.9	-0.6	21.1	5.3	19.5	13.2	30.9	8.8
중 국	수입총액	25.6	32.5	34.7	21.6	31.1	29.8	27.4	32.0	44.1	37.3
	원자재	19.9	42.8	49.1	21.5	34.8	36.4	33.4	41.2	73.0	68.5
	자본재	30.9	25.7	30.0	24.4	10.0	22.1	32.3	33.9	28.1	25.3
	소비재	27.0	27.5	18.5	16.9	16.5	19.5	9.4	9.6	14.1	2.4
미 국	수입총액	10.0	7.9	17.8	0.5	16.9	10.6	6.6	6.6	20.0	0.9
	원자재	3.7	21.1	21.3	28.9	35.0	26.8	25.0	27.4	33.6	21.7
	자본재	12.1	-2.4	18.3	-13.2	38.5	9.3	-7.1	-11.6	5.9	-20.9
	소비재	15.2	21.3	13.1	11.0	16.1	15.2	34.3	47.8	20.8	29.1

자료: 한국무역협회

(7)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세계경제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2/4분기 이후 적자폭이 확대

- 2/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억3천만 달러
 - 1/4분기 부진했던 상품수지가 2/4분기 중 흑자로 개선되고 고환율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섬.
- 7~8월 중 경상수지는 총 72억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원화 약세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2/4분기 42억7천만 달러에서 7월 24억6천만 달러, 8월 20억 달러로 점차 개선됨.
 - 반면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8월 들어 적

자 반전(28억2천만 달러)

-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적자추세이나 원화 약세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여행수지: 1/4분기 -30억2천만 달러 → 2/4분기 -27억7천만 달러 → 7월 중 -14억9천만 달러 → 8월 중 10억9천만 달러
 - 사업서비스수지: 1/4분기 -29억1천만 달러 → 2/4분기 -29억 달러 → 7월 -14억2천만 달러 → 8월 -12억6천만 달러

〈표 1-10〉 최근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경상수지(=A+B+C+D)	53.9	-16.6	0.3	44.3	31.5	59.5	-52.1	-1.3	-25.3	-47.1
A. 상품수지	279.1	60.4	69.7	96.8	67.3	294.1	-12.2	57.2	2.2	-28.2
B. 서비스수지	-189.6	-61.8	-44.0	-58.8	-41.2	-205.7	-50.7	-42.7	-24.6	-20.0
여행수지	-130.6	-36.1	-36.6	-43.6	-34.7	-150.9	-30.2	-27.7	-14.9	-10.9
사업서비스수지	-71.7	-22.6	-17.1	-19.1	-25.1	-83.8	-29.1	-29.0	-14.2	-12.6
C. 소득수지	5.3	-6.9	-15.4	16.6	13.4	7.7	16.9	-6.5	2.4	3.2
D. 경상이전수지	-40.9	-8.3	-10.0	-10.3	-8.0	-36.5	-6.1	-9.4	-5.4	-2.2

자료: 한국은행

2.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5% 후반대로 큰 폭 확대

- 1/4분기 3.8% 증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2/4분기에도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7%로 급등
 - 공업제품 가격은 2/4분기 8.6% → 7월 11.4% → 8월 9.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 개인서비스 가격은 2/4분기 4.4% → 7월 5.0% → 8월 5.1% 증가함.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4분기 3.9%에서 7~8월 중 4.65%로 상승세 확대
 - 8월 들어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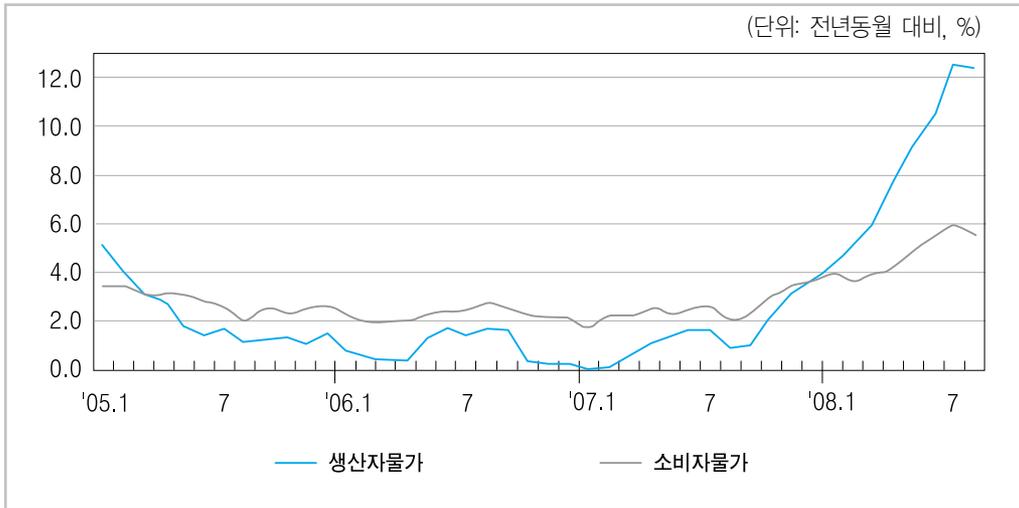
■ 생산자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7~8월 중 두 자릿수를 기록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4분기 9.0%로 급등한 생산자물가는 7~8월 중에도 공산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세
 - 1.2%('07년 3Q) → 3.0%(4Q) → 5.1%('08년 1Q) → 9.0%(2Q) → 12.4%(7~8월)

■ 수입물가는 고유가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8월 들어 소폭 둔화되고 있는 추세

- 2/4분기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의 급등 등으로 27.3%(계약통화 기준) 증가
 -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1/4분기 23.9%, 2/4분기 41.6%, 7~8월 중에는 46.6%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달러기준 수입물가는 2/4분기와 7~8월 중 각각 29.3%, 31.9%의 큰 증가

〈그림 1 -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주: *는 2005=100 기준으로 한 지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표 I -11〉 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2.1	2.5	2.4	3.4	2.6	3.8	4.8	5.9	5.6	
상품	0.9	1.5	1.3	4.0	2.0	4.6	6.9	9.3	8.4	
농축수산물	1.4	2.0	0.5	3.8	1.9	0.0	0.7	1.4	3.5	
공업제품	0.7	1.4	1.5	4.0	2.0	5.9	8.6	11.4	9.7	
서비스	2.8	3.1	2.9	3.1	3.0	3.3	3.6	3.9	4.0	
집세	1.6	1.8	2.0	1.9	1.8	1.9	2.2	2.4	2.4	
공공서비스	2.8	3.5	3.1	3.3	3.2	3.2	2.7	2.2	2.3	
개인서비스	3.2	3.2	3.2	3.4	3.2	3.6	4.4	5.0	5.1	
근원인플레이션	2.3	2.4	2.3	2.4	2.3	3.0	3.9	4.6	4.7	
생산자물가*	0.2	1.4	1.2	3.0	1.4	5.1	9.0	12.5	12.3	
수 입* 물 가	원화기준	1.5	2.8	1.5	12.2	4.5	23.9	41.6	50.6	42.6
	계약기준	5.4	5.7	4.1	13.4	7.0	19.7	27.3	34.1	27.0
	달러기준	5.7	5.2	4.4	14.4	7.4	21.7	29.3	35.8	27.9
가 공 단계별*	원재료	-1.8	0.3	3.1	25.5	6.7	45.1	70.2	80.8	66.3
	중간재	1.5	3.1	1.3	4.1	2.5	9.4	18.3	25.2	23.8
	최종재	-1.4	-0.6	-0.6	2.0	-0.1	3.5	6.5	8.0	7.6

주: * 는 2005=100 기준으로 한 지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부동산 가격은 증가세 둔화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변화의 기대감으로 1/4분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던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됨.
 - 강북지역이 재개발 및 거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

〈표 1-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1	0.3	0.2	0.3	0.3	0.3	0.1	0.3	0.3	0.8	0.9	0.6	0.6	0.4	0.2
서울강북(14개구)	0.5	0.7	0.4	0.6	0.6	0.9	0.6	1.2	0.9	2.0	2.4	1.1	1.0	0.5	0.2
서울강남(11개구)	0.1	0.4	0.3	0.2	0.2	0.0	0.0	0.2	0.4	0.8	0.9	0.6	0.4	0.2	0.2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경기침체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으로 취업자 증가는 여전히 부진

- 2/4분기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17만3천 명에 그치고 7월, 8월에도 각각 15만3천 명, 15만9천 명에 머물러 일자리창출 부진 지속
 - 21만 명('08년 1Q) → 17천3천 명(2Q) → 15만3천 명(7월) → 15만9천 명(8월)
- 고용률 역시 8월 59.6%로 전년동월 대비 0.2%p 하락하여 전년동월 대비 기준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58.5%('08년 1Q) → 60.4%(2Q) → 60.3%(7월) → 59.6%(8월)
 - 3, 4, 5월 고용률은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7, 8월에는 전월대비로도 하락세

■ 청년층 및 서비스업의 고용부진 지속

- 연령별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이 제일 부진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8월 전년동월 대비 11만9천 명 감소(-2.8%)하여 고용부진 지속: -2.5%('08년 1Q) → -2.1%(2Q) → -3.2%(7월) → -2.8%(8월)
 - 2007년 4.6% 증가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경기부진의 여파로 2/4분기 0.9% 감소에 이어 7월 0.9%, 8월 0.6% 증가에 그침.
 - 중·장년층(30~59세) 취업자 수는 8월 전년동월 대비 26만3천 명 증가(1.6%)하

여 평균 수준의 고용증가 유지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부진 및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1/4분기 및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 1.8% 증가하였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증가세 약화 지속: 2.0%('08년 1Q) → 1.8%(2Q) → 1.5%(7월) → 1.6%(8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감소세는 확대되고 사업서비스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증가세는 확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 -1.2%('07년) → -0.6%('08년 1Q) → -0.6%(2Q) → -0.7%(7월) → -0.8%(8월)
 - 주택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1.0%('08년 1Q) → -2.0%(2Q) → -1.4%(7월) → -1.5%(8월)

■ 임금근로자 증가세 지속적으로 약화

- 내수부진과 국제경기 침체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하락
 - 경기적 요인에 의해 상용근로자 증가세 둔화: 5.2%('08년 1Q) → 5.3%(2Q) → 4.4%(7월) → 3.9%(8월)
 -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 확대시행에 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도 지속
 - 임시직: -1.9%('08년 1Q) → -1.8%(2Q) → -1.7%(7월) → -1.5%(8월)
 - 일용직: -1.2%('08년 1Q) → -2.8%(2Q) → -2.4%(7월) → -2.3%(8월)
-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세 지속
 -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로 1/4분기에 1.4%(10만2천 명), 2/4분기에 1.5%(11만6천 명) 감소하였고 7, 8월에도 각각 1.1%(8만4천 명), 0.8%(6만1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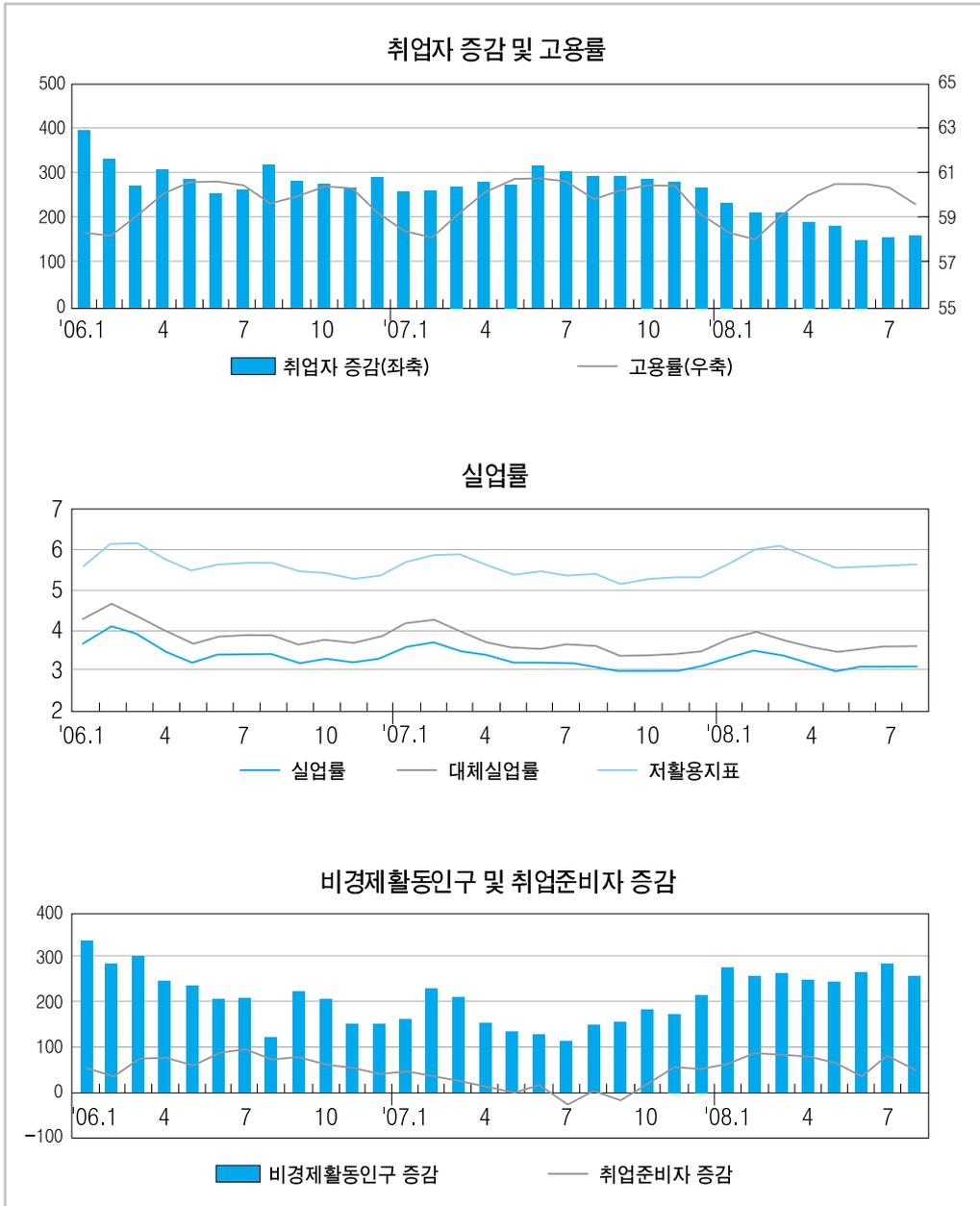
■ 실업자 및 실업률은 안정세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대

- 2/4분기 이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안정세

- 2/4분기 실업자는 76만7천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만4천 명(3.0%)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76만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천 명(1.1%) 증가하여 '0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실업률은 2/4분기 이후 3.1%에서 안정세이나 이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것에 기인
 -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대체실업률(U4)은 2/4분기 3.5%에서 7, 8월 3.6%로 다소 상승
- '08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세 지속
- '07년 17만 명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는 '08년 1/4분기, 2/4분기 및 7월, 8월 각각 27만 명(1.8%), 25만6천 명(1.7%), 28만9천 명(2.0%), 25만9천 명(1.7%)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08년 8월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 15~29세(6만5천 명) 및 60세 이상(20만1천 명)의 증가는 '07년 연령별 인구구조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비통학 취업준비)의 수 역시 '07년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되어 1/4분기, 2/4분기 및 7월, 8월 각각 8만 명(15.1%), 6만2천 명(11.1%), 8만4천 명(16.0%), 5만 명(9.0%) 증가

<그림 1-8> 노동시장 주요지표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대비 증감, %)



자료: 통계청

〈표 1-13〉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 대비 증감,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취업자 수		22,841	23,698	23,610	23,582	23,433	23,051	23,871	23,903	23,617
전년동기비 증감		264	289	296	279	282	210	173	153	159
고용률		58.6	60.6	60.2	60	59.8	58.5	60.4	60.3	59.6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6.4	1.7	23.7	-5.1	7.5	-8.1	19.1	-36.0	2.8
	36시간 이상	0.2	1.1	-2.4	2.2	0.3	2.6	-1.7	9.0	-0.3
연령 별	15~29세	-2.1	-1.6	-1.4	-1.2	-1.6	-2.5	-2.1	-3.2	-2.8
	30~59세	1.3	1.2	1.4	1.8	1.4	1.9	1.7	1.6	1.6
	60세 이상	6.5	6.3	4.6	1.3	4.6	0.6	-0.9	0.9	0.6
종사 상	비임금근로자	-2.2	-1.1	-2.2	-1.8	-1.8	-1.4	-1.5	-1.1	-0.8
	자영업주	-1.9	-0.9	-1.3	-1.4	-1.4	-1.3	-1.1	-1.4	-1.5
	무급가족종사자	-3.2	-1.8	-5.9	-3.4	-3.6	-1.8	-3.3	-0.1	1.9
지위 별	임금근로자	2.8	2.4	3.0	2.6	2.7	2.0	1.8	1.5	1.4
	상용	4.3	4.6	6.2	5.1	5.1	5.2	5.3	4.4	3.9
	임시	2.5	0.7	-0.3	-0.6	0.6	-1.9	-1.8	-1.7	-1.5
	일용	-2.4	-1.7	-1.6	1.1	-1.2	-1.2	-2.8	-2.4	-2.3
임금근로자비율		68.5	67.8	67.9	68.5	68.2	69.2	68.5	68.5	68.2
산업 별	제조업	-1.2	-1.3	-1.2	-0.9	-1.2	-0.6	-0.6	-0.7	-0.8
	건설업	2.7	1.6	-0.3	-0.5	0.8	-1.0	-2.0	-1.4	-1.5
	서비스업	2.1	2.4	2.8	2.5	2.4	2.0	1.8	1.5	1.6
	도소매·음식숙박	-1.0	-1.1	-0.2	-0.3	-0.6	-0.6	-0.7	-0.8	-0.9
	사업서비스	9.5	12.0	12.4	8.4	10.5	6.7	4.4	3.4	1.6
	보건·사회복지	5.4	9.2	8.8	11.1	8.6	13.1	14.1	10.1	14.3

자료: 통계청

〈표 I - 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실업자	851 (-64)	791 (-25)	756 (-43)	734 (-46)	783 (-44)	801 (-50)	767 (-24)	769 (-26)	764 (8)
실업률	3.6	3.2	3.1	3.0	3.2	3.4	3.1	3.1	3.1
(15~29세)실업률	7.6	7.3	7.1	7.0	7.2	7.3	7.4	7.4	7.1
계절조정실업률	3.3	3.3	3.2	3.2		3.0	3.2	3.2	3.2
대체실업률(U4)	4.1	3.6	3.5	3.4	3.7	3.5	3.5	3.6	3.6
저활용지표	5.8	5.5	5.3	5.3	5.5	5.9	5.6	5.6	5.6
비경제활동인구	15,305 (204)	14,647 (142)	14,865 (143)	15,00 (193)	14,954 (170)	15,575 (270)	14,903 (256)	14,949 (289)	15,277 (259)
15~29세	5,266 (144)	5,329 (120)	5,321 (120)	5,385 (98)	5,325 (116)	5,382 (116)	5,377 (48)	5,283 (113)	5,414 (65)
30~59세	5,639 (30)	5,262 (-2)	5,399 (-20)	5,323 (-58)	5,405 (-13)	5,605 (-34)	5,246 (-16)	5,353 (-18)	5,392 (-9)
60세 이상	4,401 (31)	4,056 (21)	4,146 (60)	4,294 (154)	4,225 (67)	4,587 (186)	4,280 (224)	4,312 (191)	4,370 (201)
구직단념자	129 (2)	95 (-19)	108 (-12)	99 (-26)	108 (-14)	114 (-15)	104 (9)	120 (16)	116 (-3)
취업준비	530 (38)	559 (12)	539 (-13)	557 (46)	546 (21)	610 (80)	621 (62)	610 (84)	606 (50)

주: 1) 대체실업률(U4)=(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100

2) 저활용지표=(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100

3)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8월 중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여 14% 중반으로 추정

- 시중유동성을 나타내는 M2 증가율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통화가 환수됨에 따라 소폭 하락
 - 7월 이후 기업과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났으나 외국인이 국내 증권투자 자금을 해외로 대거 빼내간 것이 시중유동성 증가 억제에 기여
- 8월 중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11% 후반으로 추정
- 미국의 금융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와 8월 중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통화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통화량 증가율은 6월을 고비로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5〉 주요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평잔 기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중	1/4	2/4	3/4	4/4	4월	5월	6월	7월	8월
M2	7.0	7.2	8.1	10.9	8.3	11.5	11.0	11.1	11.2	14% 중반	15% 내외	15% 내외	14% 후반	14% 중반
Lf*	7.2	7.4	7.5	9.2	7.9	10.0	10.2	10.2	10.4	12% 초반	13% 내외	12% 중반	12% 중반	11% 후반

주: *는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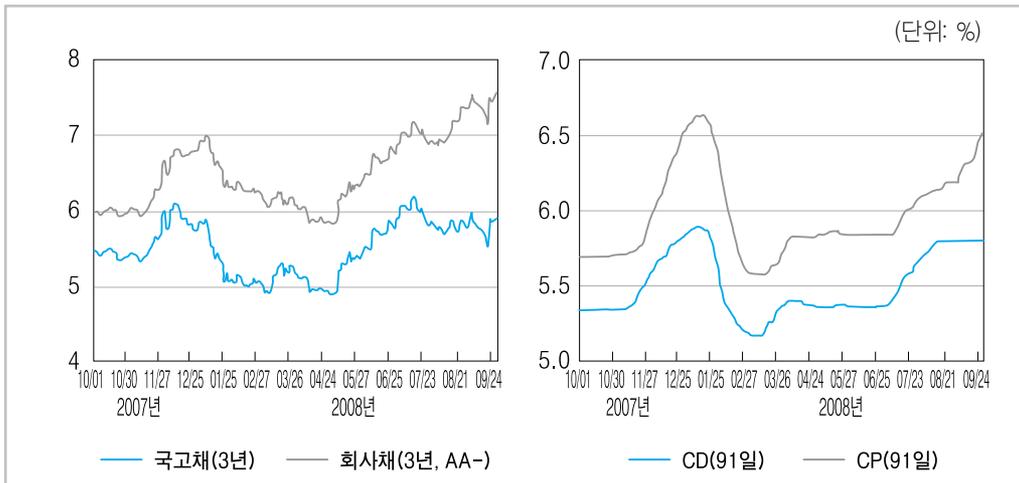
(2) 금리

■ 8월 금통위 후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금리는 9월 들어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급상승

- 7월 중 시장금리는 월 초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유가급등으로 6%대로 상승했으나 유가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데 힘입어 하락세로 반전
 - 7월 금통위에서 한은총재가 물가상승의 2차 파급효과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8월 중 시장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상쇄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함.
 - 8월 초에는 경기둔화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둔화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
 - 8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금리는 환율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임.
 - 9월 중 시장금리는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유가하락,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및 경기둔화 우려 증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 후 급등
 -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9월 위기설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월초에는 큰 폭으로 상승
 - 시장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18일 폭등세를 보인 후 미국 정부의 사상최대 규모 구제금융 지원계획 및 한은의 단기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진정 국면
 - 미 정부의 구제금융계획이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달러화 약세 및 미 경제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구제금융법안의 미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 5.46%(5월 30일) → 6.17%(7월 14일) → 5.66%(8월 7일) → 5.97%(9월 2일) → 5.49%(9월 16일) → 5.89%(9월 18일) → 5.93%(9월 25일)

- 회사채수익률도 9월 중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금융시장의 원화유동성 경색으로 전염되면서 폭등
 - AA- 등급 회사채도 지난 8월 이후 연 7%대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반영
 - *회사채 유통수익률(3년만기 회사채 'AA-' 등급 기준): 6.85%(7월 1일) → 7.17%(7월 14일) → 7.55%(9월 2일) → 7.09%(9월 16일) → 7.48%(9월 18일) → 7.66%(9월 25일)
 -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BBB-등급) 금리는 9월 18일 연 10.49%까지 급등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CD금리는 7월 하순 이후 8월 기준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 CD 및 CP금리는 7월 중순까지 장기금리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CP발행물량 증가, 자산운용사 매수세 부진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 CD금리는 7월 하순 이후 기준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후 8월 하순 이후 5.79%에서 안정세를 지속
 - CD금리는 9월 중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5.79~5.80%의 보험세를 유지

*CD 금리: 5.36%(5월 30일) → 5.48%(7월 14일) → 5.79%(8월 18일)→
5.79%(9월 18일) → 7.80%(9월 25일)

- CP금리는 8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면서 9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폭등
 - 기획재정부의 국고여유자금을 위탁받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자산담보부유동화어음(ABCP)나 일반CP에 대한 투자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CP 금리가 급상승
 - CP 금리: 5.84%(7월 1일) → 6.12%(8월 7일)→ 6.29%(9월 8일)→ 6.39%(9월 18일)→ 6.58%(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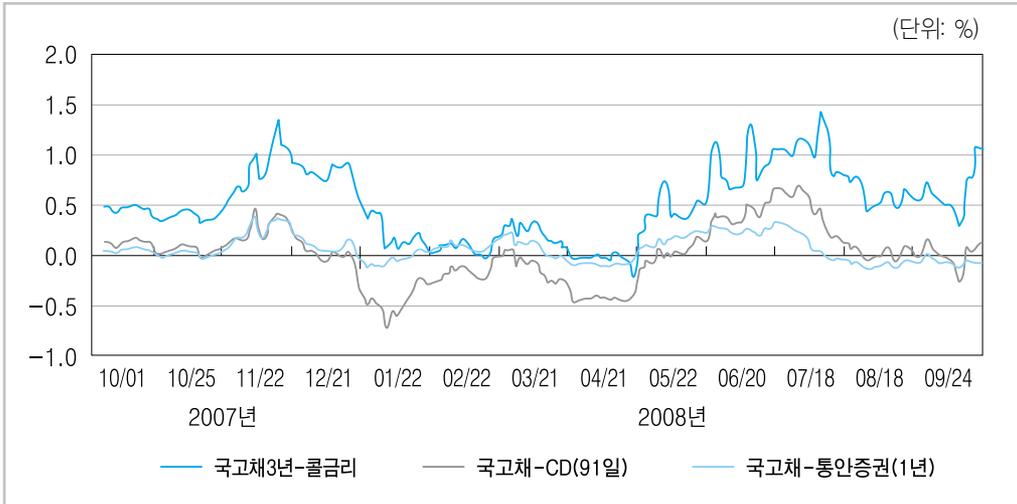
- 기준금리는 8월 7일 인상 이후 5.25%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0.25%p 인상
 -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만임.

- 7월 이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3월 이후 진정세를 보여온 신용스프레드는 8월 이후 급격히 확대

- 7월 이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
 -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후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며 국고채 3년 금리와 기준금리(5%)의 차가 확대된 후 점차 축소
 -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고채 3년 금리와 기준금리(5.25%)의 차이가 축소. 장기시중금리의 하락세와 단기시중금리의 상승세 영향으로 국고채 3년 금리와 CD90일 금리는 8월 중 역전

- 9월 초반에는 9월 위기설의 해소와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고채 3년 금리와 기준금리(5.25%)의 차이가 축소했으나 중반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원화유동성 위기감 고조의 영향으로 장기시장금리가 급등, 장단기 금리가 다시 확대
 - 국고채 3년 금리와 CD금리 역전은 9월 18일 이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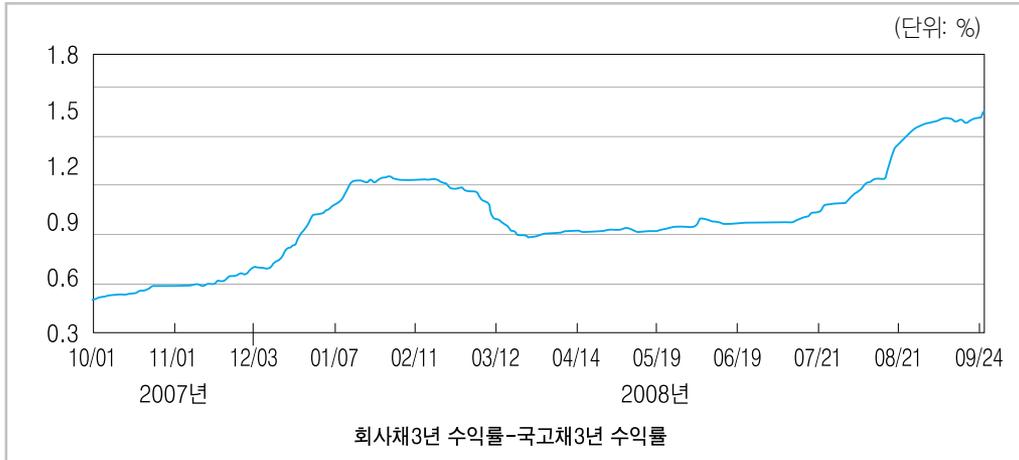
〈그림 1-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신용스프레드는 8월 이후 9월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불안의 재부각에 따라 급상승
 - 7월 초 89bp였던 회사채금리(3년)와 국고채(3년) 금리의 신용스프레드는 9월 8일 161bp로 확대된 후 9월 18일 159bp를 기록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전염되면서 신용스프레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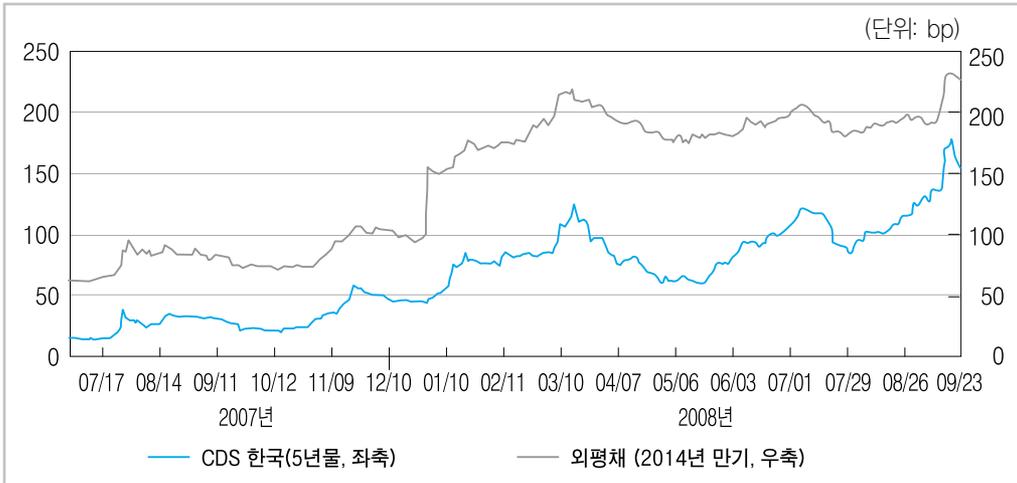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가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평채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8월 이후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의 부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위기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상승
 - 외평채 가산금리(2014년 만기, bp): 179(7월 29일) → 218(9월 15일) → 233(9월 18일) → 225(9월 23일)
 - CDS프리미엄(5년물, bp): 85(7월 30일) → 114(8월 25일) → 182(9월 18일) → 156(9월 23일)
 - 9월 중 미 투자은행 3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과 4위 투자은행의 메릴린치의 BOA로의 인수합병, 미 1위 보험사 AIG에 대한 구제금융 효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절하 등의 영향으로 18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도달하면서 외평채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최고치에 도달
 - 9월 19일 미정부의 사상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구제금융계획안이 발표에 힘입어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외평채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 하락 반전

〈그림 1-12〉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 악화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1-16〉 주요금리 현황

(단위: 연리 %, 말일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콜금리(1일물) (A)	3.70	4.49	5.00	5.00	4.99	4.97	4.95	4.98	5.21	5.16
CD유통수익률(91일)	4.04	4.76	5.34	5.43	5.73	5.36	5.36	5.52	5.77	5.79
CP유통수익률(91일)	4.26	4.90	5.70	5.77	6.25	5.87	5.76	5.95	6.06	6.33
국고채(3년) (B)	5.06	4.82	5.42	5.54	5.89	5.28	5.70	5.96	5.77	5.79
회사채(3년, AA-) (C)	5.49	5.18	5.98	6.16	6.73	6.22	6.68	6.99	7.11	7.39
B-A(%p)	1.36	0.33	0.42	0.54	0.90	0.31	0.75	0.98	0.56	0.83
C-A(%p)	1.79	0.69	0.98	1.16	1.74	1.25	1.73	2.01	1.90	2.23
C-B(%p)	0.43	0.36	0.56	0.62	0.84	0.94	0.98	1.03	1.34	1.60

주: 2008년 9월은 24일 현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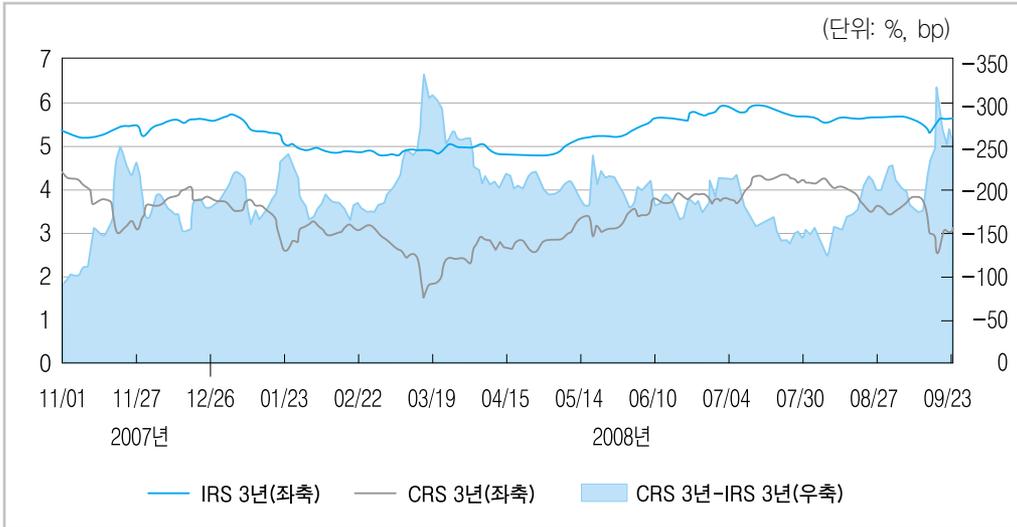
■ 외화스왑시장은 8월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의 재발에 따른 달러유동성 악화로 다시 불안장세를 보이다 9월 중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불안심리가 급격히 고조됨.

- IRS금리는 7월 들어 금리인상 기대감 고조로 인한 CD금리의 상승 및 은행권 자금부족의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가 상승한 반면 채권시장 약세 전망에 따른 장기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

- IRS금리는 8월 중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단기물 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 전망으로 장기물 금리는 하락 지속
• 월 후반에 장기 IRS금리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심화

- IRS금리는 9월 중 9월 위기설의 해소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다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상승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1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금리에서 스왑스프레드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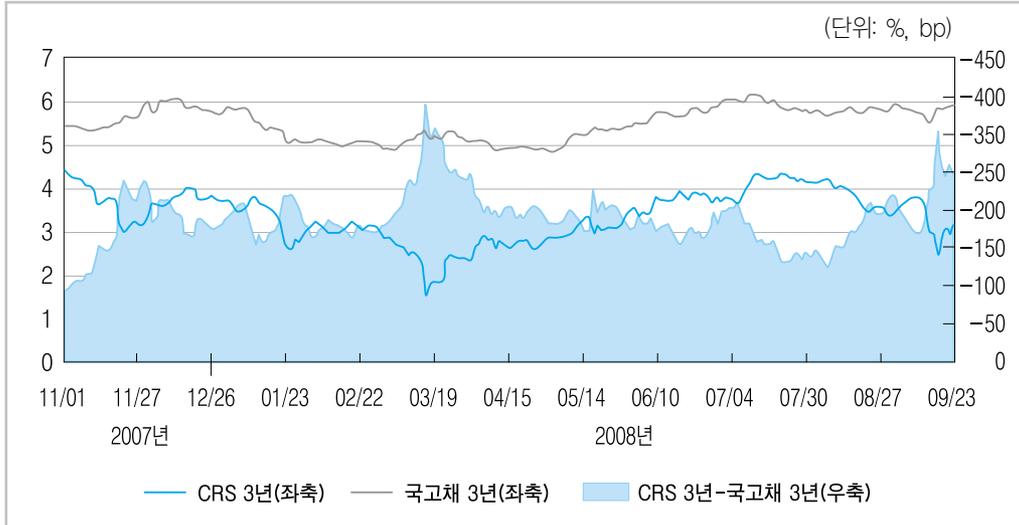
◁ 그림 1 -13 ▷ 스왑베이스스(CRS-IRS) 추이



자료: 산업은행

- 통화스왑(CRS)금리는 5월 중 정부의 단기외채 규제 검토로 급락한 후 상승
 - 7월 중 정부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차입한도 복귀 발표와 글로벌 신용위기 완화로 CRS금리는 상승, 스왑베이스스는 전 구간에서 -200bp 이하로 축소
 - 8월 중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선물환매도 압력 및 신용경색 우려로 CRS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스왑베이스스는 3년 이하 구간에서 -200bp 이상으로 다시 확대
 - 9월 중 CRS금리는 9월 위기설의 소멸로 상승하다가 리먼 브러더스 발 신용경색 우려 및 리먼 브러더스 발행 파생상품에 투자한 일부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 우려로 급락. 1년물 스왑베이스스가 18일 지난 3월 이후 최대치인 -371bp까지 확대된 후 소폭 축소
 -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스왑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자 한은이 스왑시장에 개입, 1년물 스왑베이스스가 24일 전일 대비 36bp 축소된 -315bp까지 축소되면서 스왑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

〈그림 I -14〉 국고채-CRS 스프레드 추이



자료: 산업은행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채권시장 및 스왑시장의 불안고조

■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18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채투매 현상이 발생, 금리가 폭등하는 공황장세(패닉)가 발생

- 서울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지표금리는 전일보다 각각 29bp 높은 연 5.89% 및 5.95%로 마감, 채권가격의 유례없는 약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장중 한때 41bp 상승한 6.01%에 거래됐으나 한 국은행의 단기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6%선 아래로 하락
 - 하루 동안 금리 상승폭으로는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파문이 발생한 2003년 3월 12일 상승률 0.51%p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
 - 회사채 3년물은 0.30% 크게 오른 7.48%를 나타냄.
 -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101틱 하락한 105.36으로 마감

-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한 공포가 채권시장에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원화자금시장에서도 고조됨.
 - 채권시장에서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해 일부 증권사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콜자금공급을 꺼리고 있다는 소문에 의해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서 금리가 폭등
 - 국내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 채권을 위주로 투매, 불안심리를 가중시킴.

- 외국인들이 채권투매에 나서 시장은 패닉상태에 직면
 - 달러자금의 품귀현상으로 외국인의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스왑(CRS)금리가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손절매성 국채매물이 쏟아짐.
 - 1년물 통화스왑(CRS)금리가 전일보다 67bp 낮은 연 2.25%까지 폭락했고, CRS와 금리스왑(IRS)의 차이인 스왑베이스스가 400bp에 육박
 - 그동안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가격을 불문하고 손절매를 하면서 국채선물 12월물이 한때 전일보다 154틱 낮은 104.83까지 폭락
 - 채권시장의 호조세를 주도해온 외국인의 채권투매로 실질적인 매수주체가 사라져 시장은 패닉에 빠짐.

- 정부의 외환스왑시장 직접개입 검토 소식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왑시장 개입 및 시중유동성 공급조치로 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외환스왑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기조는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18일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3조5천억 원가량의 단기자금을 공급
 -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증권사 콜차입이 무난히 진행됨에 따라 채권금리는 하락 반전
 - 미국의 구제금융안 의회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한국은행의 스왑시장개입 등에 힘입어 1년물 CRS 금리는 18일 2.25%에서 25일 2.85%로 급등

■ 7월 중 예금은행의 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를 지속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상승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리가 모두 상승하여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에 비해 0.15%p 상승
 - 금리 6.0% 이상인 정기예금 구성비가 일부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등으로 17.2%로 크게 상승
 -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전월 보다 0.22%p 상승한 5.84%
-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7월 들어 전월에 비해 0.10%p 상승
 - 기업대출금리는 0.08%p, 가계대출 금리는 0.19%p 각각 상승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추이

(단위: 연%, %p)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¹⁾	5.11	5.28	5.27	5.50	5.84	5.33	5.45	5.39	5.50	5.67	0.12
순수저축성예금	5.05	5.24	5.23	5.46	5.74	5.28	5.46	5.34	5.40	5.55	0.18
시장형금융상품	5.16	5.32	5.32	5.54	6.01	5.41	5.45	5.46	5.62	5.84	0.04
대출 평균금리 ²⁾	6.56	6.70	6.79	6.80	7.08	6.90	6.91	6.96	7.02	7.12	0.01
기업대출	6.59	6.74	6.82	6.82	7.16	6.92	6.91	6.96	7.04	7.12	-0.01
(대기업)	6.01	6.29	6.32	6.38	6.77	6.43	6.43	6.39	6.53	6.66	0.00
(중소기업)	6.74	6.86	6.93	6.95	7.27	7.10	7.09	7.14	7.21	7.30	-0.01
가계대출	6.51	6.66	6.71	6.75	6.99	6.89	6.99	6.95	6.93	7.12	0.10
(주택담보대출)	6.38	6.52	6.55	6.59	6.85	6.70	6.80	6.79	6.77	6.92	0.10
(신용대출)	6.71	6.90	6.98	7.04	7.20	7.23	7.36	7.25	7.224	7.50	0.13
공공·기타대출	5.72	5.63	6.41	6.16	5.14	6.21	6.39	6.77	6.85	6.99	0.18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호조세를 보였던 은행의 기업대출은 8월 들어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 4조1천억 원의 증가에 그침.
 - 대기업 대출은 2조1천억 원 늘어나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냄.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휴가철에 따른 자금 비수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
- 8월 들어 회사채·CP·주식 등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소폭 축소
 - 주식발행액은 증시약세로 4천억 원 증가에 그침.
 - 회사채 순발행은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월 1조1천억 원 증가
 - CP 순발행규모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반기 결산 후 재취급되면서 3조1천억 원이나 늘어났던 7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

〈표 1-18〉 기업 자금조달추이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연중	8월	연중	8월	6월	7월	8월	8월 말잔액
원화대출 ¹⁾	42.2	2.4	73.7	4.8	7.6	8.6	3.9	450.5
(대기업)	-1.3	0.1	8.5	0.8	1.4	3.0	2.1	53.4
(중소기업)	43.5	2.4	65.1	3.9	6.1	5.6	1.8	397.1
사모사채인수 ²⁾	16.6	1.2	-6.3	-0.6	0.0	-0.1	-0.3 ⁵⁾	20.9
CP순발행 ³⁾	-2.9	1.3	-1.8	-0.1	-1.1	2.3	1.1 ⁵⁾	27.5
회사채순발행	2.6	-0.5	3.8	0.1	0.5	0.7	1.2	
주식발행 ⁴⁾	5.0	0.2	6.5	0.8	0.9	0.4	0.4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예금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제외)

3) 은행연합회의 CP거래정보 기준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5) 8월 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8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둔화

- 8월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둔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 축소로 증가세가 둔화
 - 주택담보대출의 전월의 3조1천억 원 증가에서 2조2천억 원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소폭 늘어난 1조2천억 원 증가

〈표 1-19〉 은행의 가계대출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8월 말잔액
	연중	연중	8월	연중	8월	5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¹⁾	29.4	40.9	2.7	17.8	3.4	2.7	3.1	2.5	2.2	381.4
(주택담보대출 ²⁾)	20.6	26.8	1.3	4.6	0.6	1.5	1.3	2.4	1.0	232.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1.6	13.0	2.8	1.2	1.8	0	1.2	146.5

주: 1)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올 2/4분기 중 가계신용 19조8,336억 원 증가

- 2008년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660조3,060억 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7조9,136억 원 증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판매신용은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1조9,200억 원 증가

〈표 1-20〉 가계신용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12월 말	2006년 12월 말	2007년			2008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3월 말	6월 말
가계신용잔액 (A+B)	521,495.9 (9.9)	581,963.5 (11.6)	596,440.7 (9.3)	610,643.8 (9.3)	630,678.6 (8.4)	640,472.4 (9.2)	660,306.0 (10.7)
	[46,833.6]		[48,715.1]			[29,627.4]	
		<23,145.9>	<9,923.8>	<14,203.1>	<20,034.8>	<9,793.8>	<19,833.6>
가계대출잔액 (A)	493,468.7 (9.8)	550,431.3 (11.5)	564,723.4 (9.3)	578,496.4 (9.3)	595,397.2 (8.2)	604,981.2 (9.0)	622,894.8 (10.3)
	[44,070.5]	[56,962.6]	[44,965.9]			[27,497.6]	
		<20,978.6>	<9,445.1>	<13,773.0>	<16,900.8>	<9,584.0>	<17,913.6>
판매신용잔액 (B)	28,027.3 (10.9)	31,532.2 (12.5)	31,717.3 (10.0)	32,147.4 (9.5)	35,281.4 (11.9)	35,491.2 (13.6)	37,411.2 (18.0)
	[2,763.2]	[3,504.9]	[3,749.2]			[2,129.8]	
		<2,167.2>	<478.7>	<430.1>	<3,134.0>	<209.8>	<19,20.0>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 분기말 대비 증감액, [] 안은 연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 8월 중 은행 수신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로 전환

- 7월 중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었던 은행 수신은 8월 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
 - 은행 수신 증가폭: +5조3천억 원('08년 6월) → +6천억 원('08년 7월) → +15조6천억 원('08년 8월)
 - 정기예금이 은행들의 고시금리 인상, 고금리 특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시입출식예금이 월말 휴일에 따른 결제자금 이월 등으로 증가로 전환
-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로 전환
 - 자산운용사 수신: -1조 원('08년 6월) → -3천억 원('08년 7월) → +4조 원('08년 8월)
 - 주식형펀드는 증시불안 장기화 전망에 따른 적립식펀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어

4,300억 원 증가에 그침.

- 채권형 펀드는 금리변동성 심화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매도세 등이 환매로 이어져 9천억 원 감소
 - MMF는 증시약세와 금리상승세를 관망하는 투자심리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유발함에 따라 4조3천억 원 급증
- 8월 중 증권사 수신고는 46조9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5천억 원 증가
- 글로벌 증시의 불안 고조로 국내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고객예탁금이 전월 말 대비 9천억 원 감소
 - 안전한 단기상품 선호 경향에 따라 4%대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RP는 전월 말 대비 1조4천억 원 증가
- 8월 중 종금사 수신고는 60조6천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7천억 원 증가
- CMA는 증권사 CMA계좌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7천억 원 감소하고 CP는 9천억 원 감소
 - 발행어음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전월 말 대비 9천억 원 증가

<표 1-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연중	연중	8월	연중	8월	6월	7월	8월	8월 말잔액
은행 수신	36.0	73.1	7.0	49.9	4.3	5.3	1.2	15.6	897.6
수시입출식 ¹⁾	22.0	15.0	-3.7	-7.2	-2.6	5.2	-5.6	3.3	226.5
정기예금	-8.0	16.5	4.4	11.9	-0.1	-3.7	1.9	6.7	314.6
단기시장성	20.2	15.7	2.6	24.0	4.8	3.5	2.5	0.1	114.8
은행채	8.2	31.6	2.8	29.2	2.4	-0.2	3.3	3.9	154.7
자산운용사 수신	17.3	30.3	-1.8	61.8	4.1	-1.0	-0.3	4.0	361.9
MMF	5.0	-7.7	-3.1	-10.4	-2.8	-4.7	-0.1	4.3	75.1
주식형	17.6	20.3	1.3	69.9	6.0	1.7	1.6	0.4	144.1
채권형	-24.5	-1.0	-0.9	-9.6	0.3	-0.9	-2.2	-0.9	37.9
혼합형	7.9	5.6	-0.2	-3.3	0.0	0.8	-0.7	-0.6	46.0
신종펀드	11.2	13.1	1.2	15.3	0.7	2.1	1.1	0.8	58.8
증권사 수신	19.8	27.8	25.6	41.8	40.9	47.2	46.4	46.4	46.9
고객 예탁금	11.9	8.4	9.6	9.5	12.8	9.2	9.0	9.0	8.1
RP	7.9	19.4	16.0	32.3	28.1	38.0	37.4	37.4	38.8
종금사 수신 ²⁾	23.2	33.3	31.2	52.5	50.8	60.3	61.8	61.3	60.6
발행어음	7.3	13.3	11.2	17.5	21.0	18.8	18.7	18.2	19.1
CMA	2.9	3.7	4.3	5.7	4.7	5.1	5.1	5.1	4.4
어음매출(CP)	9.1	16.3	15.7	29.3	25.1	36.4	38.0	38.0	37.1

주: 1) 요구불예금 포함

2) 증권사, 종금사 수신은 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5) 주식시장

- 5월 중순 이후 유가급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조정국면에 들어간 국내주가는 9월 중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폭락세를 보인 후 소폭 회복
 - 7월 중 국내주가는 기업실적둔화와 미국의 금융부실 우려로 하락세를 보임.
 -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의 유동성 우려와 미국 금융주 실적부진 등으로 신용위기가 재부각되고 국제유가의 급등 및 IT, 조선업 등의 실적부진 등으로 장중 한때 1,488.75까지 하락한 후 유가 하락 등으로 소폭 반등
 - 8월 중 국내주가는 글로벌 금융 불안의 재연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코스피지수는 장중 1,400선을 하회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
 - 한국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및 신흥시장 증시 전반이 부진
 - 9월 중 국내주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연일 급등락하는 불안한 장세를 보임.
 - 월초에는 9월 위기설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는 1,404선으로 마감
 - 9월 위기설의 종결과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발표(8일) 등으로 코스피지수는 10일 1,477선으로 상승
 -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메릴린치의 BOA 앞 매각(15일) 등의 대형악재로 코스피지수는 급락
 - AIG구제금융 발표 등 미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추가파산 가능성, 미 주택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코스피지수는 급등락을 반복
 - 미 정부의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채권매입 기구 설립 계획 발표(9월 26일)로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급등
 - 미국의 사상최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확대가 미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4일 연속 상승
 - 코스피지수: 1,666.46(7월 1일) → 1,594.67(7월 31일) → 1,414.43(9월 1일) → 1,477.92(9월 12일) → 1,387.75(9월 16일) → 1,495.98(9월 24일)

- 코스닥지수: 580.07(7월 1일) → 546.65(7월 24일) → 439.44(9월 1일) → 466.91(9월 12일) → 429.29(9월 16일) → 448.80(9월 24일)

〈그림 1-15〉 주가지수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2〉 주식시장 주요지표

(단위: 조 원, %, 말일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24일)
종합주가지수(KOSPI)	1,434.46	1,897.13	1,825.47	1,852.02	1,674.92	1,594.67	1,474.24	1,440.91
거래대금(평균)	2.0	3.6	5.7	5.9	4.6	4.7	3.8	5.6
시가총액	704.6	951.9	926.7	940.1	850.8	809.8	749.6	731.7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10.753	-24.712	-1.172	0.312	-5.1007	-6.1670	-3.3624	-0.1546
코스닥지수(KOSDAQ)	606.15	704.23	647.02	652.15	590.19	539.44	470.28	443.60
거래대금(평균)	1.7	1.3	1.4	1.3	1.3	1.2	1.0	1.0
시가총액	72.1	99.9	91.4	93.5	85.8	79.5	70.1	66.3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0.454	+0.089	0.128	-0.003	-0.3522	-0.1279	-0.1207	-0.0111
고객예탁금	8.4	9.5	11.0	10.0	9.1	9.0	8.1	8.7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한국은행

5. 외환시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7월 중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으로 1,000원대로 하락한 후 미국의 금융불안 재발 등의 영향으로 9월 중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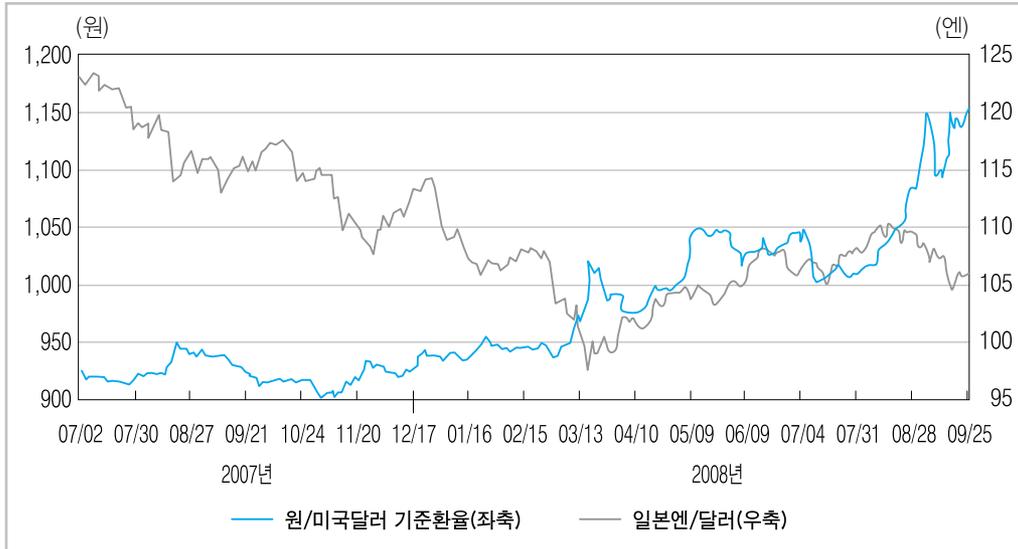
-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시장으로 1,040원 중반에서 1,000원 선으로 급락

- 외환시장 개입 선언 이후 한 달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매도한 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시장개입 후 일주일 동안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 대규모 달러매도 개입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 및 유가 하락세의 둔화 등이 환율하락세의 경직요인으로 작용

- 8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 강세 반전, 9월 채권시장 위기설 등을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됨.

-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유가의 하향안정 등의 영향으로 8월 초 1,010원대에서 안정되었던 원/달러 환율은 1,089원으로 동월을 마감

그림 1-16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 9월 중 원/달러 환율은 9월 채권시장 위기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됨.
 - 9월 초 9월 외국인 채권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설로 3일 장중 1,161원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1,117.9원으로 마감
 - 9월 위기설이 해소되고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소식으로 원/달러 환율은 11일 1,080원대로 하락
 - 16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소식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인 50.9원이나 급등했으나 19일 미국의 부실채권정리기구 설립계획 발표에 따라 1,139.70원으로 마감
 - 정부의 외환스왑시장 직접개입 검토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적자금 투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확산, 정유사 결제수요, 외국인 주식매도 송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 24일 1,150원대를 돌파함.

〈표 1-23〉 원/달러 환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환율	1,024.3	955.5	929.2	917	930.24	942.39	944.69	979.86	986.66	1,036.73	1,029.27	1,019.12	1,041.54	1,112.00
(전년평균 대비, %)	-10.5	-6.7	-2.8	0.1	1.4	1.3	0.2	3.7	0.7	5.1	-0.7	-1.0	2.2	6.7
원/100엔 환율	930.66	821.49	789.75	826.2	828.42	872.92	880.57	972.30	962.35	994.18	963.02	954.22	953.03	1032.22
(전년평균 대비, %)	-12.1	-11.7	-3.9	4.5	0.3	5.4	0.9	10.4	-1.0	3.3	-3.1	-0.9	-0.1	8.3

주: 2009년 9월은 1~24일 평균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8월 이후 원/엔 환율은 9월 초반 일시 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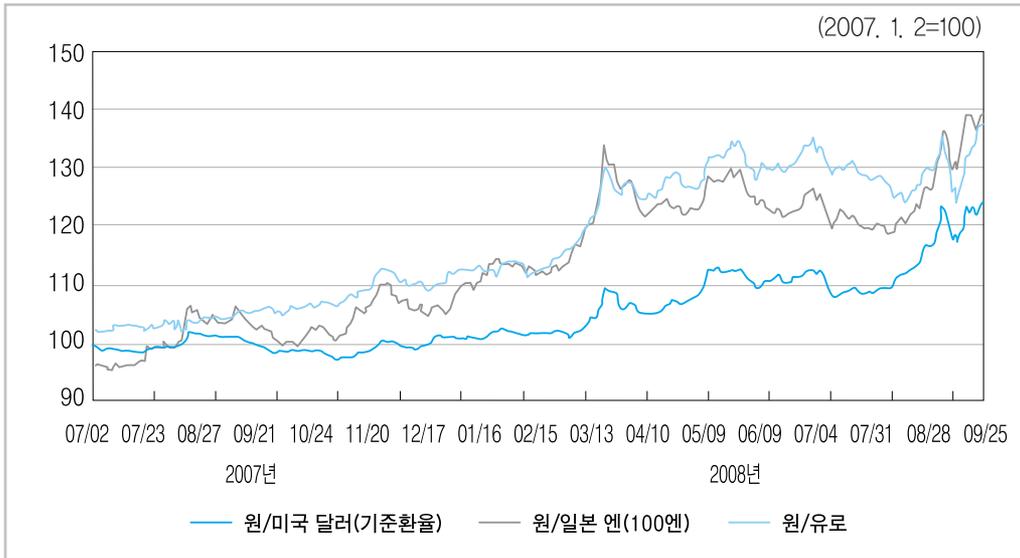
- 7월 중 원/엔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국의 대규모 달러매도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100엔당 980원에서 940원대로 하락
- 8월 중 원/엔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 기조 및 일본의 경기둔화 우려와 국제유가의 하락에 힘입어 급등으로 엔/달러 환율이 110엔 내외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00엔당 942원에서 1,000.80원으로 급등
- 9월 중 원/엔 환율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107엔 내외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100엔당 1,001.38원에서 1,088.23원으로 급등

■ 8월 이후 원/유로 환율은 9월 초반 일시 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를 시현

- 7월 중 원/유로 환율은 달러/유로 환율의 하락세(유로화 약세)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기조가 겹쳐 1,644원에서 1,571원으로 마감
- 8월 중 원/유로 환율은 달러/유로 환율의 하락세(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18일 1,523원까지 하락한 후 원/달러 환율의 대폭 상승의 영향으로 1,590원으로 마감

- 9월 중 원/유로 환율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유로 환율이 상승세(유로화 강세) 반전과 원/달러 환율의 대폭 상승의 영향으로 1,689원으로 급등

◁ 그림 1-17 ▷ 주요 통화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유출입 현황

■ 7월 중 자본수지는 기타투자수지가 유입초를 보였으나 직접투자, 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순유출되어 57억7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자본수지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유출초를 시현
 - 올해 누적(1~7월) 자본수지 적자는 110억 달러에 달함.
- 7월 중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보다 더 크게 늘어나 12억1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보임.

- 증권투자수지는 2개월 연속 유출초를 기록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순회수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순유출되어 증권투자수지는 88억6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증권투자수지는 올해 누적(1~7월) 자본수지 적자는 128억5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올해 누적 자본수지 적자에서 주식은 287억4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한 반면 채권은 159억 달러의 유입초를 기록

- 기타투자수지는 2개월 연속 유입초를 보여 7월 중 51억8천만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및 무역신용 도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표 I -24〉 자본유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1~7월누계
자본수지	186.2	62.3	64.4	-33.3	-22.0	4.0	-56.3	-39.9	-57.7	-110.0
직접투자수지	-34.8	-137.0	-28.7	-24.5	-74.2	-47.9	-29.1	-7.4	-12.1	-89.1
(내국인해외투자)	-71.3	-152.8	-29.4	-24.5	-78.1	-41.2	-27.0	-9.3	-16.5	-84.6
(외국인국내투자)	36.5	15.8	0.75	0.08	3.9	-6.7	-2.1	1.9	4.3	-4.5
증권투자수지	-225.4	-190.9	-0.27	-91.7	6.0	-110.7	60.0	-57.0	-88.6	-128.5
내국인증권투자	-225.8	-424.1	-119.6	-54.6	-98.6	69.8	-6.7	-6.2	7.7	-0.1
(주식)	-152.0	-524.4	-121.7	-96.7	-173.6	-7.2	-25.7	-9.2	-1.2	-34.0
(채권)	-73.8	100.2	2.05	42.1	75.0	77.0	19.0	3.0	8.9	33.9
외국인증권투자	0.33	233.2	119.4	-37.1	104.6	-180.4	66.6	-50.8	-96.3	-128.3
(주식)	-84.2	-287.3	6.9	-179.4	-110.5	-168.9	-52.5	-52.2	-66.0	-287.4
(채권)	84.5	520.5	112.4	142.3	215.1	-11.5	119.1	1.4	-30.3	159.0
기타투자수지	476.8	414.1	100.2	88.6	49.5	164.9	-76.7	25.6	51.8	139.9
내국인기타투자	-87.6	-184.2	-38.4	-57.6	-77.7	-46.0	-50.4	-1.9	-16.9	-113.2
(대출)	-9.4	-103.3	-12.5	-38.6	-46.8	-6.4	-25.0	4.4	-28.0	-59.4
외국인기타투자	564.4	598.4	138.6	146.2	127.2	210.9	-26.3	27.5	68.7	253.2
(차입)	433.6	415.5	94.2	68.8	105.9	146.7	-9.2	40.3	46.8	184.2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30.3	-23.9	-6.9	-5.7	-3.2	-2.4	-2.3	-0.9	-1.8	-6.4
자본이전수지	-29.7	-23.4	-6.8	-5.8	-3.5	-1.7	-1.9	-0.9	-1.8	-5.4
비생산·비금융 자산순취득	-0.7	-0.5	-0.017	0.09	0.33	-0.6	-0.5	0.0	0.0	-1.0

주: *는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경제

■미국경제: 경제 침체기조 확산

- 2/4분기 실질GDP는 수출호조와 감세효과 등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1.9%의 증가세를 기록
 - 수출증가율(전기대비): 2.61%('07년 4Q) → 3.47%('08년 1Q) → 5.87%('08년 2Q)
 - 상반기 지속적인 감소세이던 산업생산은 7월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8월 다시 -1.1%의 감소세로 반전됨.
 - 그러나 고용시장의 사정은 악화되고 있어 2/4분기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했으며 8월 현재 6.1%를 기록함.
 - 고용시장의 악화, 주택시장의 침체, 그리고 금융불안 등으로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7월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다소 상승폭이 축소됨.
- 진정국면의 조짐을 보이던 미국 금융시장은 7월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최근 불확실성이 다시 증폭되고 있음.
 - 주택경기 침체의 심화로 대형모기지업체인 IndyMac이 영업정지를 선언하면서(7월 11일), 모기지 채권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자본건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 이에 대해 재무부와 연준이 합동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신용공여 한도를 임시 확대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7월 15일) 대응에 나섰으나, 양사의 추가하락이 계속되고 신용등급이 나빠지면서 결국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됨(9월 8일).
 - 유동성 조달을 위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2천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정부관리 체제하로 편입됨.
 - 공적자금 지원의 대가로 재무부는 두 기업 지분의 80%를 확보하고, 모기지 및 모기지유동화 증권 보유규모를 내년 말까지 8,500억 달러로 줄이고 매년 10%씩 감축하여 향후 2,500억 달러까지 줄일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재무장관 폴슨은 공적자금의 투입이 금융시장 안정, 모기지시장 정상화, 납세자 보호 등의 3대 원칙하에 이뤄졌다고 발표함.
- 또한 부동산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최근 차례로 부도정리되면서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대표적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유동성 부족으로 뉴욕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함³⁾(9월 16일).
 - 메릴린치 또한 BOA(Bank of America)에 주당 29달러의 인수가격(총 500억 달러)에 인수됨(9월 16일).
 - 미국의 최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Washington Mutual Inc.)이 파산하면서 예금자산과 지점망이 JPMorgan에 인수됨(9월 26일)
 -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미 연준으로부터 2년 만기의 브리지론 형식으로 8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지분의 79.9%의 대정부 매각에 합의함(9월 18일).
- 미국 정책당국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공조하에 기준금리 동결과 유동성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
 - 2/4분기 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으나(6월 26일) 성장률 하강보다 물가상승 압력의 위험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7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국제유가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로 방향전환하게 됨.
 -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연준은 ‘프라이머리 달러대출(PDCF)’ 과 ‘기간부 국채임대대출’에 대한 담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규모도 기존의 1,7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확대함(9월 16일).
 - 미 연준은 9월 19일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2%와 2.25%로 동결하는 동시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5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9월 19일).
 - 금융불안이 머니마켓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안정을 위해 환율안정기금으로부터

3) 영국 Barclays는 리먼 브러더스의 북미투자은행 부문을 1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동의함.

- 5,0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고, 향후 1년간 MMF의 원금을 보장하기로 함(9월 22일).
- 또한 미 연준과 함께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⁴⁾
 -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손실이 총 1~2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으로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원규모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해 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
- 지금까지와 같은 산발적인 정부대응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며 1980년대 말 정리신탁공사 형태의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부실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해 향후 2년간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인수권한을 의회에 요청함(9월 22일).⁵⁾
 - 야당인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신속하고 초당파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미 금융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미국 국민들의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미국하원은 근소한 표 차이(23표)로 구제금융법안을 부결함(9월 30일).
 -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 Hensarling은 구제금융법안이 지나치게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 효과가 의심된다고 발언함(9월 30일).
 - 이에 대해 재무부는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장함.
-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위기의 규모와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됨에 따라 미국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미 연준은 9월 17일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 간에 합의된 통화스왑라인의 규모를 2,900억 달러에서 6,2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함.

5) 단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은 2008년 9월 17일 이전에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에 한정됨.

- IMF는 7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택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한 작년 자산상각 및 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4,69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함.
- 뉴욕대 Roubini 교수는 미국이 경기침체 제2기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최소한 1년 반 이상 침체가 지속되며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언급함(8월 5일).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Roach도 신용위기가 미국과 세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향후 미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아시아 수출국가들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둔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9월 3일).
- 이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대규모 금융시장 지원으로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⁶⁾

〈표 I -25〉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실질GDP ¹⁾	3.1	3.3	0.6	4.0	4.9	0.6	2.2	0.9	1.9	-	-
산업생산 ²⁾	3.2	4.0	0	0.3	0.3	0	2.1	-0.1	-0.1	0.2	-1.1
소비자물가	3.4	3.2	2.4	2.7	2.4	3.7	2.9	4.0	4.4	5.6	5.4
실업률(%)	5.1	4.6	4.5	4.5	4.7	4.8	4.6	4.9	5.3	5.7	6.1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5.9	110	106.5	105.8	91.2	103.4	76.5	57.3	51.9	56.9
무역수지(억 달러)	-7,871	-8,382	-2,034	-2,059	-2,012	-2,089	-8,194	-2,110	-2,151	-749	

주: 1) 전기비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경제: 회복세 둔화

- 2/4분기 실질GDP는 수출과 민간건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1% 증가세에 그쳐 작년 4/4분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6) 백악관은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액을 사상 최고액인 4,8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2008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4,070억 달러로 사상최고치(2004년도 4,13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2/4분기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광공업 생산은 7월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세로 돌아섬.
 - 반면 고용시장은 비정규직의 비중 증가와 임금 상승 부진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4%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 또한 상반기 원자재 및 국제원유 가격 급등 효과로 인해 7월 중 2.3%를 기록하며 가속화
 -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수출은 7월 들어 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8.0%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함(7월 대중수출은 1조2,864억 엔, 대미수출은 1조2,763억 엔).
 - 그러나 일본의 수출산업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신흥국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향후 금융위기의 심화로 인해 이들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일본경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
- 최근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진단도 비관적인 의견이 지배적임.
-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저금리 등에 따라 일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유가, 수출둔화 등으로 당분간 성장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8월 26일)
 - 경제산업성이 전국 10개 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기초판단을 하향수정한 데 이어(9월 18일), 내각부도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기조판단을 2개월 연속으로 ‘약화중’으로 유지함(9월 19일).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 금융권이 진통을 겪으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과 함께 유동성 주입에 나서고 있음.
- 올해 6월 말까지 6개 일본 주요 은행들의 미 서브프라임 관련 피해총액은 1조300억 엔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으로 중소은행들의 피해가 클 것이며, 일본 금융계의 손실은 2,49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융감독청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리먼 브러더스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9월 16일), 일본은행은 9월 19일 단기금융시장에 2조 엔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함.

- 또한 일본은행은 9월 18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시키면서 당분간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을 시사함.
-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경기침체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음.
 - 내각부는 9월 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보증대출과 감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1조7천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9월 1일), 이와 더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5천억 엔 규모의 건설채를 발행할 예정
 - 경제산업성은 물류개혁과 신흥자원보유국 등과의 경제적 연대관계 구축을 통해 2015년까지 실질국민총소득 연평균 2.4% 성장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성장전략’을 발표(9월 10일)

〈표 I -26〉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실질GDP*	1.9	2.2	2.8	1.6	1.9	1.7	2.1	1.3	1.0	-
광공업생산	1.1	4.8	3.2	2.4	2.8	2.8	2.7	2.5	1.0	2.4
소비자물가	-0.3	0.3	-0.1	-0.1	-0.1	0.5	0.0	1.0	1.4	2.3
실업률(%)	4.4	4.1	4.0	3.8	3.8	4.0	3.9	3.8	4.0	4.0
수출	7.3	14.6	10.3	13.2	10.9	10.1	11.6	6.2	1.9	8.0

주: *는 전기비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경제: 경기둔화

- 1/4분기 소폭 개선되던 성장률(0.7%)은 2/4분기 들어 금융위기와 고유가 및 유로화 강세 등에 기인하여 감소세로 전환됨(-0.2%).
 - 산업생산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으로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등이 부진하면서 2/4분기 -0.4%의 감소세를 이어 7월에도 -0.3% 감소
 -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4분기 3.7%, 7월 중 4%를 기록했으나

8월 들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됨.

- 작년 하반기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던 유로지역 실업률은 2/4분기 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4~7월 중 월평균 7.3%).
- 물가상승과 함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체감지수도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임.
- 이러한 경기변화를 반영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종전(1.7%) 보다 낮은 1.3%로, 인플레이율은 종전(3.1%)보다 높은 3.6%로 전망함(9월 11일).

〈표 1-2〉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실질GDP	2.9	0.7	0.3	0.7	0.4	2.6	0.7	-0.2	-	-
산업생산	4.1	0.1	0.1	0.3	0.2	3.4	0.1	-0.4	-0.3	
소비자물가 ¹⁾	2.2	1.8	1.9	1.9	2.7	2.1	3.4	3.7	4.0	3.8
실업률(%)	8.2	7.4	7.5	7.2	7.2	7.4	7.1	7.3	7.3	
경기체감지수(ESI) ²⁾	107.3	110	111.6	109.3	105.2	109	100.5	96.5	89.5	88.8
수출 ¹⁾	11.6	9.5	9.3	10.1	5.0	8.3	7.1	7.9	8.5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미국발 금융경색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 지원에 나섬.
 - 인플레 억제를 강조하던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둔화 및 신용시장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동결함(9월 4일).
 -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유럽 금융권은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진정책으로 2,73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단기금융시장에 공급함(9월 30일).
 -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세이던 유럽의 금융시장도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주요국들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국 내 금융기관들에 구제금융을 지원 중

-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웨버 등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9월 17일)으로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해 경계를 표시함.
- 그러나 최근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중국경제: 성장세 소폭 둔화

- 올해 들어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소폭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07년 4/4분기 11.2% → '08년 1/4분기 10.6% → 2/4분기 10.1%)
 - 2/4분기 GDP는 위안화 절상, 미국 등 해외 주요시장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05년 이후 최저 성장률인 10.1%를 기록함.
 -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고유가와 내수 호조 및 중국정부의 수입 확대조치 등에 기인하여 큰 폭 증가세를 보여 무역수지는 대폭 축소된 모습을 보임.
 - 4월 이후 산업생산은 해외수요 둔화와 베이징올림픽에 따른 환경정비 등의 영향으로 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증가세를 시현함('07년 4/4분기 17.5% → '08년 1/4분기 16.6% → 2/4분기 15.9% → 7~8월 13.8%).
 - 올해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는 올림픽 개최와 쓰촨성 대지진 복구 노력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2/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와 총통화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한편, 해외경기의 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중국은 정책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 1/4분기 8%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는 2/4분기 7.8%, 7~8월 중 5.6%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원자바오 총리가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성장과 인플레이율 통제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등(7월 28일) 중국 정책당국은 그간의 긴축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시사함.
 - 인민은행 또한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국내문제 등으로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에 다소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함(8월 18일).

-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과 중국정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국제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⁷⁾
- 인민은행은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신용시장 경색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2년 이래 첫 금리인하를 단행함(9월 16일).⁸⁾
*1년만기 대출금리 0.27%p 인하, 기준율 1%p 인하

〈표 1-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실질GDP	10.7	11.1	11.9	11.5	11.2	11.4	10.6	10.1	-	-
산업생산	16.6	18.3	18.3	18.1	17.5	18.5	16.6	15.9	14.7	12.8
소비자물가	1.5	2.7	3.6	6.1	6.6	4.8	8.0	7.8	6.3	4.9
M2	16.9	17.3	17.0	18.4	17.9	16.7	17.6	17.5	16.4	16.0
고정자산투자*	24.5	25.3	26.0	26.6	26.7	26.1	25.3	26.8	27.3	27.4
무역수지(억 달러)	1,775	464	663	732	760	2,622	415	582	253	287

주: * 는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급등추세이던 원자재 가격은 최근 들어 다소 진정국면으로 들어섬.

- 올해 들어 수급불균형과 달러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급등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8월 이후 세계경제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하락기조로 반전됨.

7) 인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전국은행은 5%, 지방은행은 10%로 확대함(8월 28일).

8) 단,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대 은행과 우정국 등에는 기준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며, 5월 웬촨(Wenchuan) 지진피해 지역은행들에게는 기준율을 2%p 인하함.

- 금융불안 지속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한 데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OPEC은 탈퇴를 선언한 인도네시아 생산쿼터를 제외하여 산유량을 기존의 2967bpd에서 2880bpd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감산 결정을 내림(9월 11일).
- 골드만삭스는 국제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내년 유가 평균치를 종전 전망치 보다 30달러 하락한 배럴당 110달러로 전망함(9월 22일).
-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정부의 대규모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국제원유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CRB선물지수와 금선물도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섬.

〈표 1-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단위: 달러/배럴, 1967년=100)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유가현물(Dubai)	53.3	58.7	85.7	87.2	90.2	96.9	103.6	119.5	127.9	131.3	113.0
CRB선물지수*	331.8	307.3	358.7	369.5	412.7	386.9	409.3	422.2	462.7	416.4	391.7
금선물	518.9	638.0	838.0	922.7	975.0	916.2	865.1	887.3	928.3	913.9	831.2

주: * 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IMF는 올해 세계경제는 4.0%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내년 금융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보다 0.3%p 낮은 3.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 침체국면 진입

-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3.3%로 전기(0.9%)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가계소비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국내총소득 증가율: 4%('07년 3Q) → 3.3%(4Q) → 2.8%('08년 1Q) → 2.3%(2Q)⁹⁾

- 또한 상반기 진정국면에 들어서던 금융시장 불안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으로 다시 증폭되면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짐.
- 장기간 지속되던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미국경제의 주 동력원으로 부상한 수출산업도 국제경기의 둔화세가 확대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음.
- 더불어 국채발행 등을 통한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은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저해시켜 향후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둔화

- 금융시장 불안과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
- 2008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산업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민감한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되면서 향후 국제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반면 일본 금융권의 미국 부동산 관련 부실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일본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감세와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고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9) 전년동기 대비

- 유로지역경제, 경기 회복세 둔화
 -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기조를 유지하던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대외여건 악화로 향후 부진이 예상된다.
 - 또한 물가가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적극적인 내수경기 부양도 어려운 상황임.
 -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유로경제의 성장세는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2008년 1.4% → 2009년 0.7%, IMF).

-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추세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정책방향을 그간의 긴축기조에서 확장기조로 전환하고 있음.
 - 또한 소득증가와 견조한 국내투자에 힘입어 내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2007년 ²⁾	2008년		2009년	
		IMF	OECD ¹⁾	IMF	OECD ¹⁾
세계성장률	4.9	4.0	1.8	3.7	1.7
미국	2.2	1.7	1.8	0.8	1.1
일본	2.1	1.4	1.2	1.5	1.5
유로	2.6	1.4	1.3	0.7	1.4
중국	11.4	9.3	10.0	9.5	9.5

주: 1)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2) 2007은 IMF 통계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September 2008.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Update, September 2008.

- 국제유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수요 확대와 수급불균형 등으로 2008년 107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다 내년 국제수요의 위축으로 95달러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 최근 국제유가는 국제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의 증폭에 따른 투기수요의 부활 등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진정세를 보이던 투기수요는 달러화가 약세 전환함에 따라 재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더불어 4/4분기에는 겨울철 수요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경기 및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는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이란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과 낙후된 공급시설 등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란 핵보유를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라크의 정세 안정에 따른 원유생산 정상화는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대다수 OPEC 회원국들은 불투명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지나친 유가하락을 경계하여 선뜻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이란 석유장관 노자리는 12월 예정인 OPEC 회의에서 추가감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9월 16일).
 - 또한 과거 투자 부진으로 인한 정유시설 등의 낙후 등은 향후 수년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국제유가는 올해 하반기 이후 하향기조를 보일 것이며 내년에는 95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공급라인의 차질이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금융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로 원유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 원유 최대수요국인 미국의 1~8월 기간 원유소비가 4% 감소했으며, 이는 26년 내 최고의 감소율임.
 - OPEC은 세계경기 둔화에 기인하여 올해와 내년의 원유수요 전망을 각각 12만 bpd, 14만bpd 하향수정함.

〈표 11-2〉 세계 주요 기관의 최근 유가전망

(단위: \$/bbl)

기관 유종	기준 (전망시기)	'07년 평균	2008년			2009년						비고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평균비교 ¹⁾	
Dubai		68.51	112.50	104.50	106.69	98.50	94.50	92.50	96.50	95.50	94.50	기준유가
	CERA* (’08.9.3)	68.51	118.73	124.50	113.25	126.50	123.50	119.50	120.50	122.50	128.50	고유가 (공급부족)
		68.51	108.00	81.50	99.81	77.50	75.50	73.50	71.50	74.50	73.50	저유가 (수요감소)
Brent (D)	CGES** (’08.9.22)	72.90	114.30	100.70	108.60	90.90	85.00	-	-	85.90	-	기준유가
		72.90	114.30	101.70	108.80	96.40	97.30	-	-	105.10	-	고유가
		72.90	113.10	95.80	107.10	80.30	67.80	-	-	64.50	-	저유가
	CERA (’08.9.3)	72.47	116.50	108.50	111.02	102.50	98.50	96.50	100.50	99.50	99.50	기준유가
		72.47	121.77	128.50	117.34	130.50	127.50	123.50	124.50	126.50	133.50	고유가 (공급부족)
		72.47	112.00	85.50	104.15	81.50	79.50	77.50	75.50	78.50	78.50	저유가 (수요감소)
WTI	CERA (’08.9.3)	72.16	118.00	110.00	112.41	104.00	100.00	98.00	102.00	101.00	101.00	기준유가
		72.16	122.39	130.00	118.50	132.00	129.00	125.00	126.00	128.00	135.00	고유가 (공급부족)
		72.16	113.00	87.00	105.41	83.00	81.00	79.00	77.00	80.00	80.00	저유가 (수요감소)
	EIA*** (’08.9.9)	72.32	121.68	119.67	115.81	126.00	129.00	127.00	124.00	126.50	126.00	기준유가

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년 6월호 <표 11-2>와 비교한 수치임.

* 는 미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는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 는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다시 증폭되고 있는 국제금융불안은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금융권 부실자산 조정에 따른 신용경색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기하방요인에 주력하는 추세
- 미 연준은 9월 16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2%와 2.25%로 동결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 이에 따라 내년 경제상황에 따라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행은 9월 18일 정책금리를 0.5%에서 동결함.
 - 단기금리가 과도하게 낮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본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행 또한 당분간 중립적 기조를 유지한다는 언급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금융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ECB는 7월 초 물가상승 압력에 기인하여 정책금리를 4.25%로 인상했으나, 9월 4일 금리 동결을 결정함.
 - ECB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7월 4일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함.
 -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유럽경제의 둔화세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9월 4일 정책금리를 4.25%에서 동결함.
 - 이와 관련하여 ECB는 9월 12일 성명을 통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이 1차목표임을 재천명하면서도 유로지역 경제의 둔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함.
 - 이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불안의 여파가 진정될 때까지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짐.
- 인민은행은 9월 현재 기준율을 종전의 17.5%에서 16.5%로 1%p 인하하면서 그간의 긴축정책 기조에서 탈피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신규대출 억제와 수출시장 둔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음.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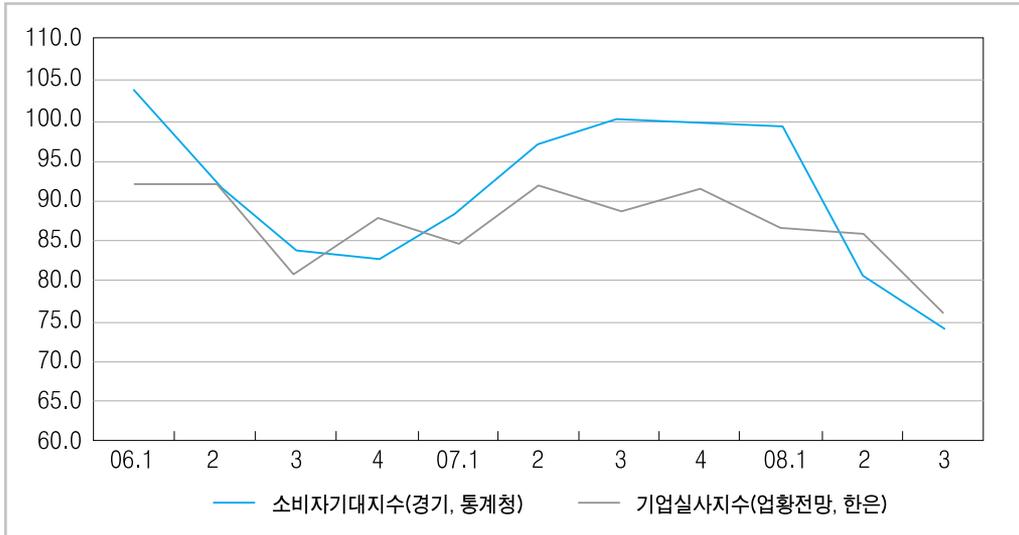
면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세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지준율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대내여건

■미 금융시장 불안 여파 등, 상당기간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지연
 - 미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요인과 달러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의한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문제가 상충하면서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 확대되면서 투자심리 위축될 가능성
 - 글로벌 자금경색에 따른 자금유출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도 하락국면이 불가피할 전망
- 주요 소비 및 투자심리 지표들의 하향세 지속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08년 1분기 102.9 → 2분기 93.1 → 7~8월 87.9
 -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08년 1분기 86.7 → 2분기 85.7 → 3분기 76.0

〈그림 II-1〉 최근 소비 및 투자 심리 추이



자료: 통계청

■ '2008년 세제개편', 2009년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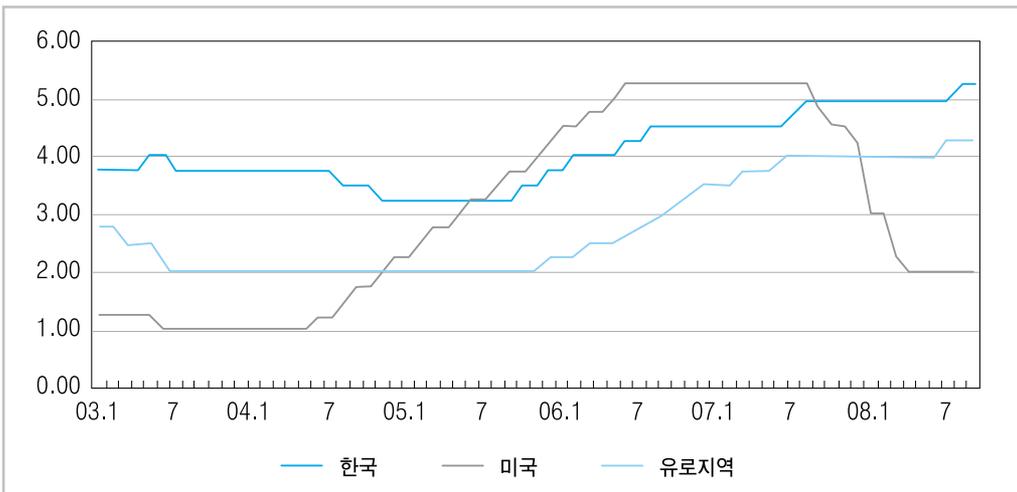
- 9월 1일 정부는 향후 5년간 21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2008 세제개편안' 발표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감세
 - 소득세율 구간별로 2%p 인하: 8~35% → 6~33%
 -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80만 원 → 120만 원) 등
 - 법인세율 인하: 13~25% → 11~25%(2008년 귀속) → 11~22%(2009년 귀속)
 - 양도세율 인하: 9~36% → 6~33%
 - 상속·증여세율 인하: 10~50% → 6~33% 등
-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감세안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04년 1조3천억 원 증세개편, 2005년 1조 원 증세개편
- 2006년 세수 중립적 세제개편
- 2007년 3조5천억 원 감세개편

■ 내년 중 물가상승 압력 완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그동안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다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해 왔음.
 - 2007년 7, 8월 두 차례, 2008년 8월 한차례 정책금리 인상
 - 2008년 9월 현재 5.25%

◁림 II -2>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주: 한국,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 연방기금금리; 유로지역, 중앙은행 재할인율

- 통화당국은 2008년 말까지는 중립적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유가하락세로 물가상승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리인하의 여지가 커짐.
 - 하지만 유가급등의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금년 중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됨.
 - 지난 9월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내수저조, 미국경기 부진 등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모멘텀 회복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
 -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로 미국 연방기금금리 2.00%p에 비해 3.25%p 높은 점도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2.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09년 실질GDP 3.8% 성장 전망

- '09년 실질GDP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위축과 수출증가세 하락되면서 연간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5.0%('07년) → 4.2%('08년) → 3.8%('09년)
 - 경기침체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의 저조한 증가세가 '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09년 민간소비는 연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4.5%('07년) → 2.5%('08년) → 2.4%('09년)
 - 건설투자는 저조한 건설수주 실적 및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의 회복지연을 감안할 때 저조한 성장이 예상되어 0.4% 증가 전망: 1.2%('07년) → -0.6%('08년) → 0.4%('09년)
 -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회복세를 감안할 때 '08년에 비해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09년 2.9% 증가 전망: 7.4%('07년) → 1.8%('08년) → 2.9%('09년)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어 주요국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 수출은 7.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침체로 6.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반기별로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안정,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의 영향이 가시

화되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

〈표 II-3〉 2009년 반기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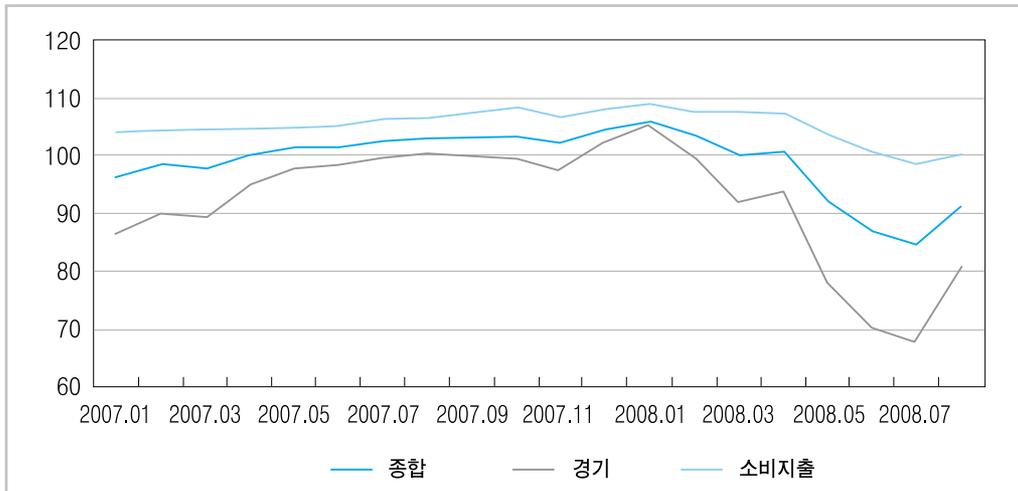
구 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1	4.5	3.8
민간소비	2.1	2.8	2.4
건설투자	-0.7	1.2	0.4
설비+무형고정자산	2.0	3.7	2.9
수출(재화+서비스)	7.7	7.3	7.5
수입(재화+서비스)	6.5	5.8	6.2

자료: 통계청

■ '09년 민간소비 2.4% 증가에 그쳐 소비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국내외 여건 악화 및 가계대출 부담의 증가와 함께 위축되어 '09년 연간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4.5%('07년) → 2.5%('08년) → 2.4%('09년)
 - 경기침체의 지속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의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에 의한 가계대출 부담의 증가는 '09년 민간소비 회복을 느리게 만들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에 의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과 이에 의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을 통해 민간소비를 추가적으로 위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
 - '08년 8월 통계청 발표 소비자 기대지수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09년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함.

〈그림 II-3〉 소비자 기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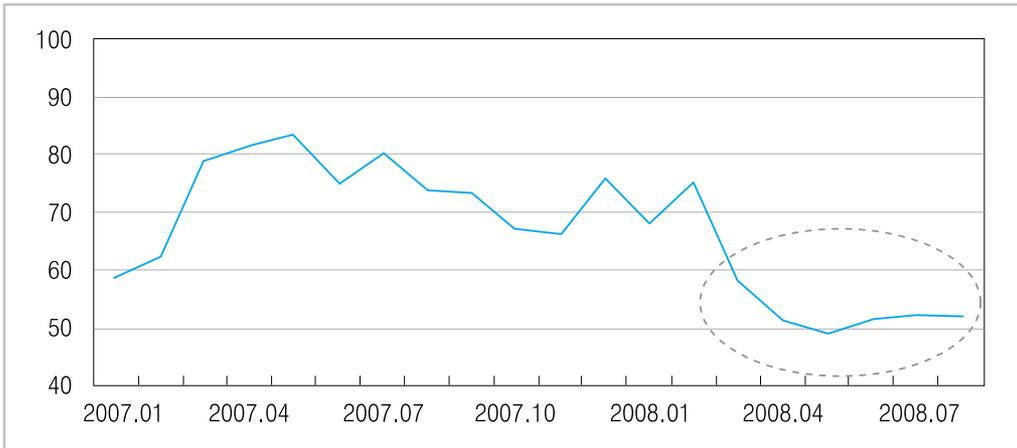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09년 건설투자는 0.4%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민간 및 공공부문 건설수주금액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부진이 예상되어 '09년 건설 투자는 '08년보다 약간 개선된 연간 0.4%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1.2%('07년) → -0.6%('08년) → 0.4%('09년)
 - '08년 7월 건설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13.0% 감소한 6조 6,856억 원에 그쳐 건설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08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역시 52.3에 그쳐 6개월 연속 6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건설경기의 회복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건설경기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즉각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듯
 -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국토해양부, '08년 8월) 및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이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그 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년 9월 19일)이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지역 토지이용 구상안」의 변경

(’08년 9월) 등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은 되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림 II-4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09년 설비투자는 2.9%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08년 7월 전년동월 대비 16.6%의 증가를 보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 BSI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09년 설비투자는 '08년 부진에서 약간 회복하여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7.4%('07년) → 1.8%('08년) → 2.9%('09년)
- 설비투자는 민간부문 위주로 제한적 성장을 보일 전망이며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설비투자 BSI의 점진적 회복 역시 설비투자의 회복을 전망
 - '08년 2/4분기 다소 감소한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7월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임.
 - 설비투자실적 BSI 및 설비투자전망 BSI 모두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하여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을 예상케 함.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물류·정보통신·외환 등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가시화될 경우 투자환경개선으로 이어져 설비투자의 회복을 도울 것으로 예상

-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회복이 지연되면서 제한적 회복세에 그칠 전망

〈표 II-4〉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p,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7월
제조업생산증가율(A)	4.1	6.3	6.2	11.2	10.7	9.0	9.1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B)	4.3	4.4	5.8	6.3	5.9	6.2	5.4
설비투자조정압력(A-B)(%p)	-0.2	1.9	0.4	5.9	4.8	2.8	3.7
제조업 평균가동률	79.4	80.7	80.0	81.0	81.1	81.0	80.4

자료: 통계청

※2008년 수정 전망내용

■ 2008년 성장률: 2007년(5.0%)에 비해 0.8%p 둔화된 4.2%로 전망

-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국내 정치사회 부란으로 새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이 분산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데 기인
- 성장률은 기존(2008년 6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지만 내수와 수출 부문 간의 최종수요 부문 간의 조정이 있었음.
 - 내수부문은 물가상승 및 금융불안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반영되어 하향 조정
 - 순수출부문은 하반기 중 수출호조, 수입둔화(실질원화기준)를 반영, 상향 조정

2008년 성장률 전망조정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8년		
	3/4	4/4	연간
성장률	3.7 ←(3.7)	2.8 ←(3.0)	4.2 ←(4.2)
민간소비	2.3 ←(3.1)	2.1 ←(2.9)	2.5 ←(3.2)
건설투자	0.5 ←(0.9)	-0.6 ←(1.9)	-0.6 ←(0.4)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포함)	1.6 ←(6.5)	1.8 ←(4.9)	1.8 ←(3.4)
수출(재화+서비스)	11.2 ←(9.6)	9.3 ←(6.6)	11.1 ←(9.8)
수입(재화+서비스)	9.2 ←(9.4)	7.8 ←(8.3)	8.7 ←(9.1)

주: () 안의 수치는 기존(전망시점: 2008년 6월) 전망치

(2) 대외거래

■ 국제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수출 성장세는 12%대로 위축되고 경상수지도 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와 금융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상반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순상품교역조건: 94.3('06년 1Q) → 96.1('07년 1Q) → 81.4('08년 1Q)
 - 2000년 이후 전통적 주력수출시장이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고 있으며, 대유럽 수출도 상승기조에 있음.

〈표 II-5〉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¹⁾
중국	10.71	12.09	14.62	18.11	19.60	21.77	21.34	22.07	22.60
일본	11.88	10.97	9.32	8.91	8.55	8.45	8.15	7.10	6.68
미국	21.83	20.75	20.18	17.66	16.88	14.54	13.27	12.32	10.67
EU ²⁾	13.60	13.05	13.35	12.84	14.90	15.35	14.89	15.07	13.82

주: 1) 2008년 1~8월까지 합한 데이터임.

2) 2007년 1월부터 25국에서 27국으로 변경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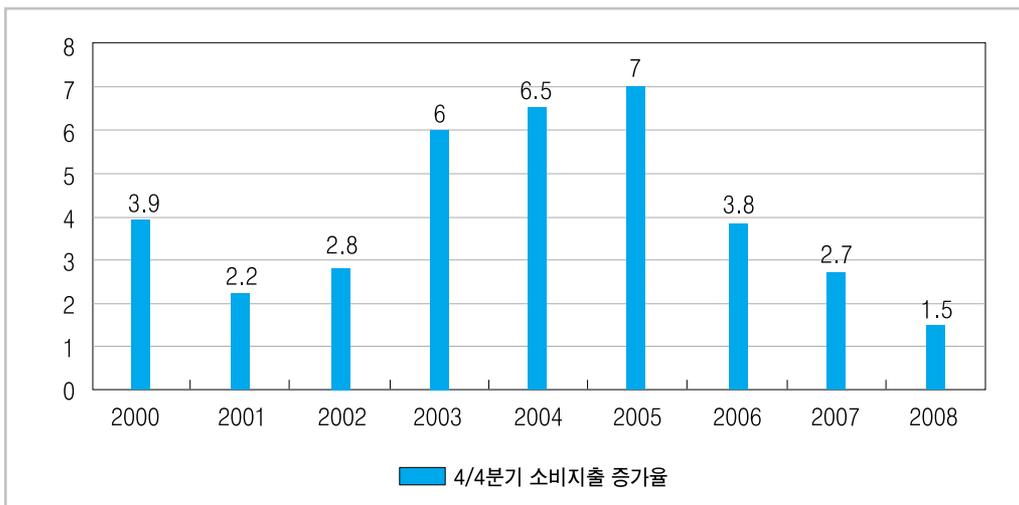
- 그러나 금융불안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4/4분기 수출증가율은 18.5%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7.3%(2Q) → 24.2%(3Q) → 18.5%(4Q)
 -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수출은 22.2%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수출둔화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져 내년 수출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크게 둔화된 12.8%를 기록할 전망
 - 미국의 경기둔화로 내년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며 이는 일본, EU지역,

중국 등의 대미수출 감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

-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4/4분기 소매판매가 2001년 이후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상GDP의 99.9%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담도 소비위축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할 것
- 소매업계의 위축은 내년 미국의 가계지출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내년에는 성장세가 10% 이하로 둔화될 전망
- 이와 더불어 지속되는 금융불안으로 인한 원화환율 변동성의 확대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I -5>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주: 2008년은 TNS Retail Forward의 전망치임.

자료: TNS Retail Forward, 미국 상무부

- 국제유가의 하락 등에 힘입어 4/4분기 경상수지는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4/4분기 상품수지는 수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등에 기인한 수입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폭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는 86억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내년에는 해외수요의 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58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상품수지는 16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 강세 등으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하여 2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3) 물가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점차 하향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연간 3.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08년 3/4분기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4/4분기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이와 더불어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추세
 - 단 4/4분기 계절적 수요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단기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내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국제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불안 지속과 이로 인한 달러화 공급으로 국제투기자본이 원유 및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내년에도 간헐적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금융불안에 의한 시장변동성 확대보다는 실물경제 침체에 의한 수요감소 효과가 더욱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3.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4)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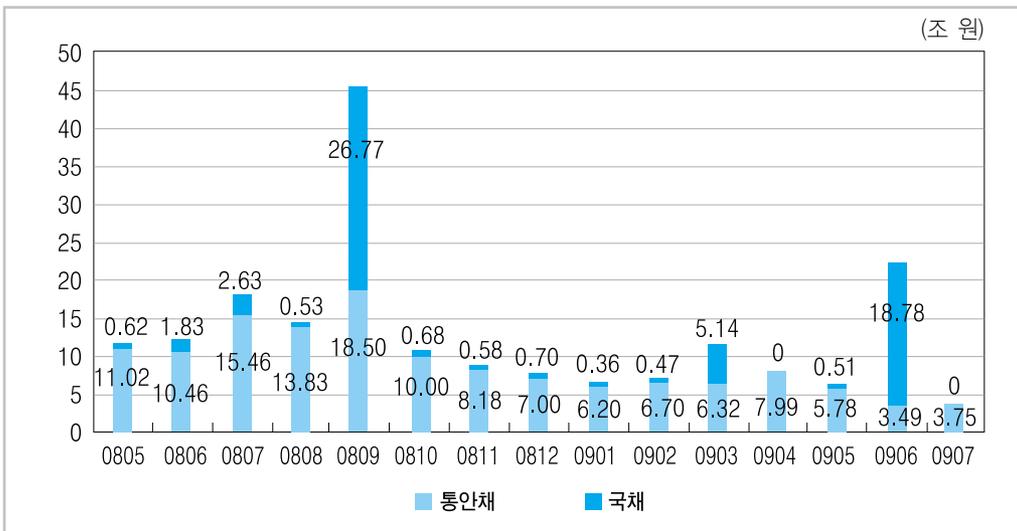
■ 시장금리는 올 4/4분기 평균 7.0%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하락세를 보여 평균 6.6%에 이를 전망

- (경기)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물가불안 고조 등으로 국내경기는 경기하강이 가속화될 전망. 이는 정책금리의 인하압력 요인으로 작용
-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및 물가 추이 사이의 시차를 고려할 경우 올 4분기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설 전망. 이는 정책금리의 동결 혹은 인상압력 요인으로 작용
- (환율) 및 국제유가 진정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 가능성, 물가급등에 대응한 정부의 환율상승세 제동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반면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지속,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 등이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달러 환율 하락의 추세형성은 어려울 듯
- (금리정책) 경기둔화의 심화에 따라 올 4/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 이하로 하락치 않을 경우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전망. 내년 1/4분기에 인플레이압력의 완화를 확인한 후 기준금리(현 5.25%)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수급여건) 회사채의 수급여건은 악화될 것이나 국고채, 통안증권의 수급여건은 우호적인 것으로 전망
- (국제금리) 미국의 대규모 구제금융계획에 따라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시장금리가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탈 전망

- 따라서 시장금리는 올 4/4분기에는 소폭 하락하여 평균 6.9%를 기록한 후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져 평균 6.7%에 이를 전망
- 물가와 경기 간의 정책우선순위의 갈등 속에서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까지 동결기조가 지속될 전망
 - 한은의 딜레마는 올 하반기에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만을 바라보고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
 - 연말쯤 유가가 더욱 하향 안정되면서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경우 가계부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이자상환부담 경감 차용 등이 고려되면서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듯
 -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내년 1/4분기에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
 - 유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음.
- 올 4/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을 전망
 - 내년 채권 공급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나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채권투자메리트로 채권 수요 기반의 회복이 기대되나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 여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은행채는 높은 금리수준에 따른 투자메리트가 큰 만큼 발행은 점차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 회사채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등 발행조건 악화로 상당기간 발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국고채는 9월 대규모 만기도래(21조 원)로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 외국인 채권투자는 최근 스왑베이스가 크게 확대되어 통화스왑 등을 활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유인이 지속하여 상당기간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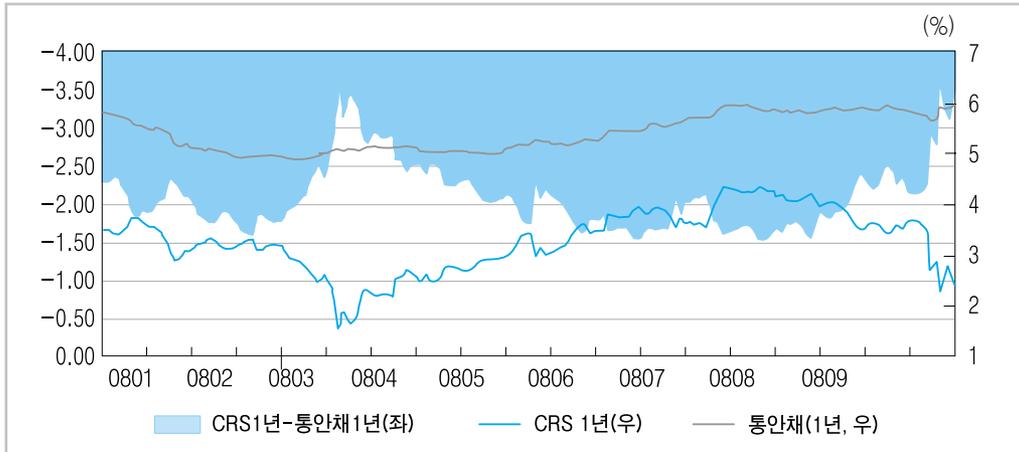
- *외은지점의 경우 본지점 차입금 손비 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환원된 데 힘입어 국내 채권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의 국내 채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외 금융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채권투자자금이 상당규모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그림 II-6> 국고채 및 통안채 만기도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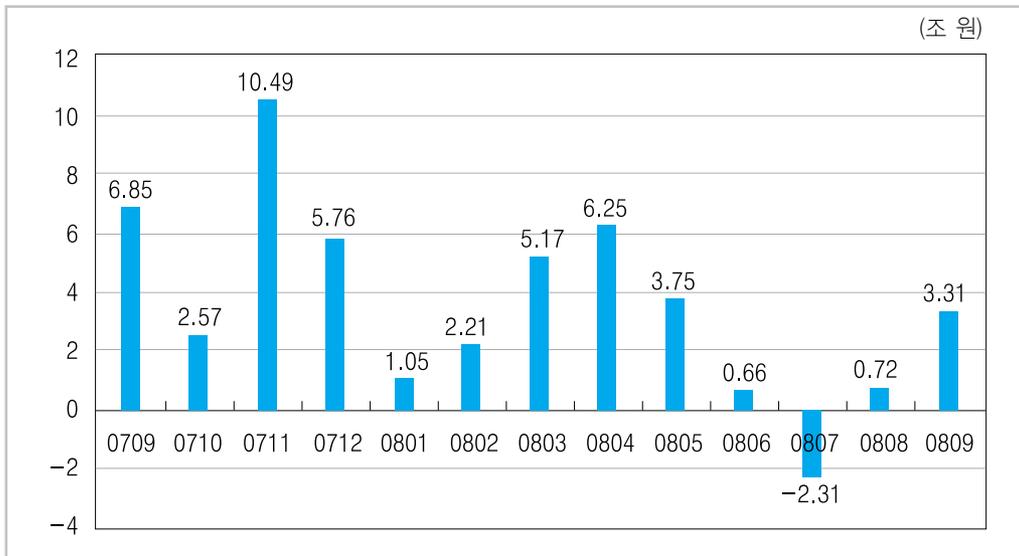
자료: 증권업협회

<그림 II-7> 재정거래 유인재확대



자료: 증권업협회

<그림 II-8> 월별 외국인 채권 순매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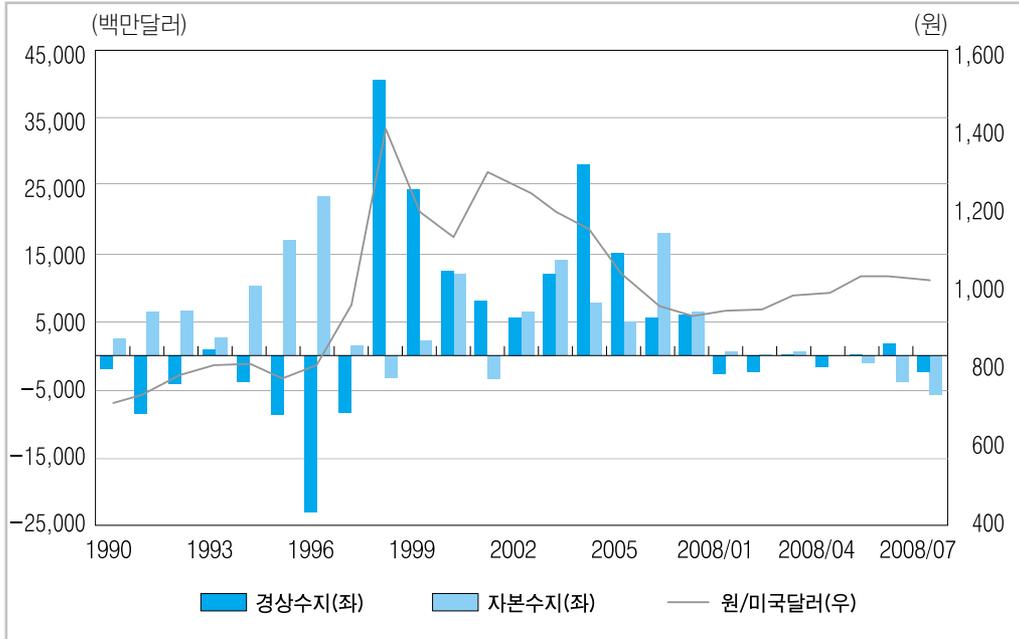
자료: 증권업협회

(5) 환율

■ 올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상승, 평균 1,190원에 머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여부, 국제유가 수준 및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보일 전망
 -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할 전망이나 미국의 금융위기와 재정적자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원유로의 투자자금 이동을 유발할 경우 하방경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유가하락기조는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기여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반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유가하락의 물가안정효과를 잠식하고 있는 원/달러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가 환율 향방의 주요 변수이나 적정외환보유고의 관리차원에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할 전망
 - 글로벌 신용경색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도 점차 잦아들 전망
 - 원/달러 환율 상승 및 하락요인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4/4분기에는 1,150~1,20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그림 II-9〉 경상·자본수지와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내년 하반기 중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경상수지 적자 개선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이 전망됨.

- 내년에는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 가능성 및 국제유가의 하락 폭 및 수출경기 등이 원/달러 환율 향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배럴당 100달러 이하의 유가가 유지될 경우 환율하락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으나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하방경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신용경색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미국의 주택경기가 내년 상반기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요인보다 하락요인이 다소 우세해지면서 1,060~1,13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여부와 미 달러가치의 향배 등도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체질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이 순조로이 입법화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에는 시장의 평가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의 하락세 지속과 미국의 금융경색 완화추세가 뚜렷해질 경우 미 달러화가 글로벌 강세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표 11-6〉 2008~2009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5.0	5.8	4.8	3.7	2.8	4.2	3.8
전기비(계절조정, %)		0.8	0.8	0.4	0.7		
민간소비	4.5	3.4	2.3	2.3	2.1	2.5	2.4
건설투자	1.2	-1.2	-1.0	0.5	-0.6	-0.6	0.4
설비+무형고정자산	7.4	2.1	1.8	1.6	1.8	1.8	2.9
수출(재화+서비스)	12.1	11.7	12.0	11.2	9.3	11.1	7.5
수입(재화+서비스)	11.9	9.2	8.9	9.2	7.8	8.7	6.2
소비자물가	2.5	3.8	4.8	5.7	5.4	4.9	3.3
경상수지(억 달러)	59.5	-52.1	-1.4	-51.7	5.1	-100.1	-58.0
상품수지(억 달러)	294.1	-12.2	57.2	12.6	61.5	119.1	166.8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1,028.8	1,182.9	1,165.5	1,253.0	4,630.2	5,224.2
증가율%	14.2	19.0	27.3	24.2	18.5	22.2	12.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1,041.0	1,125.7	1,152.9	1,191.5	4,511.1	5,057.4
증가율%	15.5	29.4	31.0	37.0	20.3	29.0	12.1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39.9	-58.6	-64.3	-56.4	-219.2	-224.8
환율(원/달러, 평균)	929.2	956.9	1,018.0	1,062.6	1,190.0	1,056.9	1,170.0
회사채수익률(3yrs, AA-)	5.7	6.4	6.3	7.2	7.0	6.7	6.6
실업률(%)	3.2	3.4	3.1	3.1	3.2	3.2	3.3

(6) 2008 조세개편 의 효과를 반영한 전망

- 9월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20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에 따르면 ’09년 기준 세수효과는 약 11조7천억 원(유가환급금 등 3조6천억 원 포함)
 - 소득세 4조6천억 원, 법인세 2조8천억 원, 상속증여세 6천억 원, 개별소비세 7천억 원, 관세 8천억 원 등
- 감세안의 경제적 효과의 개괄적인 추정 방법
 - 소득세(법인세 제외) 등의 효과: 총 11조7천억 원 중 법인세(2조8천억 원)를 제외한 약 9조 원은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보고 이 금액을 실질화하여 민간소비 함수의 설명변수인 세입부분에서 차감하여 추정
 -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낮은 세율(현행 13%)은 내년 중 2%p 인하되지만 높은 세율(현행 25%)은 1년 연기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비투자 함수에서 유효법인세율을 1%p 낮추어 추정
- 감세안의 경제적 효과¹⁰⁾ 추정 결과
 - 2009년 성장률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0.8%p) 및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투자 포함) 증가(+3.0%p) 등의 영향으로 기본전망 대비 약 0.4%p 높아진 4.2%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약 0.2%p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약 36억 달러 악화됨.
 - 취업자 수는 약 4만5천 명 증가

10)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2009년 감세효과를 성장률 0.6%p+ α , 소비 0.5%p, 투자 7%p, 고용 18만 명으로 제시

<표 11-7> 2008년 조세개편의 경제적 효과

구 분	2009년 성장률 전망				
	기본전망 (A)	세제개편 효과(B), %p			(A)+(B)
		법인세 외 감세 9조 원	법인세율 인하(1%p)	전체	
GDP(%)	3.8	+0.2	+0.2	+0.4	4.2
민간소비(%)	2.4	+0.7	+0.1	+0.8	3.2
건설투자(%)	0.4	+0.1	+1.0	+1.1	1.5
설비+무형고정자산(%)	2.9	+0.1	+2.9	+3.0	5.9
소비자물가(%)	3.3	+0.1	+0.1	+0.2	3.5
경상수지(억 달러)	-58.0	-16.1	-20.1	-36.2	-94.2
취업자 수(천 명)	23,826	+16	+29	+45	23,871

제III장

정책과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2.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
 - 금융위기와 더불어 환율,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전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이 존재
- 내수진작을 통해 수요기반 유지와 고용규모 감소추세를 막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 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이 불가피
 - 올 상반기 급등했던 물가양등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실물경제의 심각한 위축이 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감세, 금리인하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실물경제 지원에 두어야

2.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1) 거시 및 금융분야

■ 9·1 감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앞서 살폈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세안은 소비, 투자진작을 통해 작지 않은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소비, 투자의 활성화는 올 연말 이후 수출둔화가 가시화되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임.
 - 감세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줄인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합치하는 바람직한 정책임.
 - 뿐만 아니라 감세는 직간접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세율 인하는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체세원 발굴, 재

정지출 축소, 정부보유기업 매각 등의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 국가부채가 현 수준에서 확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감세, 재정지출상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가상승 압력 완화되는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 필요

- 현시점에서는 금리동결기조를 유지하나 향후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 물가불안, 경기부진, 환율불안을 모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선택은 불가능함.
 - 물가 및 환율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경기부진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바람직
-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한 가운데 향후 물가안정 추세가 가시화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은 수준
 - 높은 수준의 원화환율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현 단계에서 금리인하는 환율불안을 조장할 수 있음.
-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전망
- 만약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면 그 이전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환율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지나친 급등락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계속함.
 -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것은 피해야 함.

■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 역점

- 금융위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
 - 부동산 시장 급락,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원화급등락 방지, 중소기업 채무 변제

능력 강화 등의 대책 필요

-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최소화 및 단기외채 관리 강화
 - 금융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자금 조달 안정성 제고
 - 외화스왑시장에 개입하여 외화유동성을 공급
- 외화유동성 위기가 국내 신용경색을 심화시키는 것을 차단해야 함. 필요할 경우 정부가 외화유동성 조달 및 공급에 나서야
 - 일부 금융회사의 자금난에 적극적으로 대응, 긴급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함.
- 최대한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고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 정책 일관성을 견지한 가운데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상황악화 시 신속 진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동시에 심각하지 않은 금융불안의 진화에 몰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 그동안 지나치게 공적 개입이 빈번했던 우리나라 금융시장 관행을 감안하면 시장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 소지가 큼.
 - 공적 개입이나 지원에 앞서 적절한 대응인가 여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함.

(2) 규제완화

■비수도권 SOC 사업 본격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히 추진해야

- 새 정부도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고려를 내세워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인색한 실정
- 이 정책기조가 유지되면 국가경제의 총체적 부진이 발생하면서 내수-인구 기반 등

의 상이한 조건을 반영한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

- 이런 현상은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소득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임.
 - 자칫 ‘균형발전’의 명분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발전이 없어 ‘균형정체’의 길에 접어들 수 있음.
-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새만금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가용 자원의 제한 때문에 모든 지역을 똑같이 지원할 수 없음. 따라서 우선 특정 사업의 집중 추진을 통하여 성공적 모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지가 확보된 새만금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동반성장을 위한 시도와 논의가 성과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
- 현재 논의가 시작된 행정구역 재편을 본격화하여 몇몇 거점 광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 동시에 광역 수도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되어야 함.
-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지 않기로 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의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 및 일정을 제시
 -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수급불균형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지역별 수급불균형
- 다양한 주택공급 억제정책¹¹⁾에 의해 주택수요(전국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 서

11) 예를 들어 재건축 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 건설에 할당해야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 및 1인당 300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 중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을 10만 호)¹²⁾에 못 미치는 공급

- 특히 '04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부족 누적
- 반면 지방은 과잉공급으로 미분양주택 급증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년 9월 19일) 정책의 핵심은 '시장기능 정상화 및 도심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0년간 연평균 50만 호 건설 계획
 - 인위적 수요 및 공급억제정책을 개선하여 수요의 중심인 도심 및 도시근교 위주의 공급 확충 유도
 - 10년간 총 500만 호 공급 중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100만 호, 지방 50만 호, 총 150만 호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표 III-1〉 주택건설 실적 및 예상수요

(단위: 천 호)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평균	'04~'07 평균	예상 수요
전국	433	530	667	585	464	464	469	556	488	488	500
수도권	241	304	376	297	206	198	172	302	248	220	300
서울	97	117	160	116	58	52	40	63	79	53	100

주: 2007년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

자료: 통계청, 국토해양부

- 세제 및 대출규제 개편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
 -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를 감안할 경우 9·19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의 순효과가 크지는 않을 듯
 - 이미 시행된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경기활성화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종합부동산

12) 이는 기획재정부의 주택수요 예상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의 중장기 수요전망에도 못 미치는 규모임.

세제의 개편 역시 시차를 두고 내수진작에 기여

- 또한 주택구매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각종 대출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을 듯

(3) 노동시장

■올 들어 가시화된 일자리 창출 부진은 매우 심각한 수준

- 단기적으로는 소득기반 위축으로 내수활성화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잠재성장능력을 저하시킴.

- 현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여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임금상승 억제, 고용보호 완화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을 통해 고용사정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 높은 임금은 신규고용 창출을 저해함. 따라서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 되풀이되는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강성분규와 임금인상의 악순환은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침.
- 큰 폐단의 하나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 근로조건 정체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악의적 차별의 결과로 부각시킴.
-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된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이 이런 시각의 대표적인 산물임.

- 이러한 제로섬(zero-sum)의 접근방식은 어떻게 하면 전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됨.

- 고용총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법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청년층, 고령층 및 여성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물가안정을 저해

- 불변산업연관표 추정을 이용한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상승 발생
- 제조업 중 섬유 및 가죽, 운수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임금인상이 두드러짐.
-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 투자여건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중·장기적 고용촉진정책이 병행되어야

- 경기불황, 물가양등 및 고용불안의 3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 함께 투자여건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한 중·장기적 투자여건 개선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함.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창출의 근간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4) 사회기초질서 확립

■ 법치와 사회기초질서 확립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창달의 핵심 전제조건
 -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하나 그 방법 및 절차는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
 - 법치주의와 사회기초 질서의 붕괴는 사회혼란심화를 통해 경제 위축을 자초함.
 - 불법 집회 및 파업은 법질서 확립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최근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사회기초질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임.
 - 우리 기업의 투자부진에 기여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결국 해외투자자들에게도 대동소이한 반응을 불러옴.

- 촛불시위 종료로 일단 개선된 사회기초질서 확립이 향후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17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206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0	2.4	5.7	-0.2
2006년	5.1	8.5	18,401	4.5	6.2	3.6	7.8	-0.1
2007년	5.0	6.5	20,045	4.5	5.8	4.0	7.6	1.2
2003년	2/4	2.2		-1.5	3.7	4.2	-0.4	7.9
	3/4	2.3		-2.0	3.7	2.7	-4.6	7.7
	4/4	4.1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3	3.7	2.4	-0.1	4.9
	2/4	5.7		-0.3	4.8	4.7	6.4	3.8
	3/4	4.7		-0.7	3.7	2.9	6.8	1.0
	4/4	3.3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1.6	3.9	0.5	3.8	-3.3
	2/4	3.4		3.6	4.8	2.1	3.1	1.1
	3/4	4.8		4.4	6.0	2.2	5.0	-0.1
	4/4	5.5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5.3	5.7	4.2	7.1	1.1
	2/4	5.2		4.4	5.5	0.2	7.5	-5.3
	3/4	5.0		4.4	6.2	5.1	11.4	0.2
	4/4	4.2		3.9	7.2	4.9	5.4	3.6
2007년	1/4	4.0		4.1	6.3	7.2	10.9	3.7
	2/4	4.9		4.4	6.9	5.5	11.0	1.6
	3/4	5.1		4.8	4.5	1.3	2.3	-0.1
	4/4	5.7		4.6	5.6	2.9	6.5	0.4
2008년	1/4	5.8		3.4		0.5	1.4	-1.1
	2/4	4.8		2.4		0.4	0.8	-0.8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5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26.8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7	14.4	3,093.8	18.4	279.1	53.9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294.1	59.5	2,622.2	938.2
2006년 4월	255.9	11.9	244.9	15.3	16.4	-19.8	2,228.9	945.7
5월	279.3	20.8	262.1	23.9	22.4	7.8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32.3	14.3	2,243.6	960.3
7월	257.7	10.9	255.5	18.8	15.5	-2.3	2,257.2	953.1
8월	272.9	16.9	270.3	22.9	13.3	-7.3	2,270.2	959.6
9월	296.5	20.9	276.4	21.6	33.5	19.8	2,282.2	945.2
10월	280.2	10.5	256.2	13.1	26.3	17.8	2,294.6	944.2
11월	306.0	18.5	267.7	12.2	55.5	42.7	2,342.6	929.9
12월	287.8	12.3	275.2	13.8	17.0	0.6	2,389.6	929.6
2007년 1월	280.9	20.8	276.0	19.4	12.9	-4.3	2,402.3	940.9
2월	262.3	10.3	254.1	8.1	23.9	4.0	2,428.1	938.3
3월	303.9	13.2	292.3	12.9	23.6	-16.4	2,439.2	940.3
4월	299.4	17.0	296.0	20.9	15.2	-20.8	2,472.6	929.4
5월	310.4	11.1	298.6	13.9	22.4	8.4	2,507.4	929.9
6월	320.0	14.5	285.1	9.5	32.1	12.7	2,507.0	926.8
7월	302.1	17.2	292.2	14.4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4	9.7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9	-1.6	37.3	23.0	2,572.9	920.7
10월	344.3	22.9	327.4	27.8	36.4	24.6	2,601.4	907.4
11월	358.1	17.0	339.3	26.8	26.4	15.1	2,619.3	929.6
12월	330.3	14.8	339.0	23.2	4.4	-8.1	2,622.2	938.2
2008년 1월	322.8	14.9	362.8	31.6	-11.0	-27.5	2,618.7	943.9
2월	311.8	18.9	325.9	28.3	-6.0	-23.5	2,623.6	937.3
3월	360.0	18.5	370.7	26.6	4.8	-1.1	2,642.5	991.7
4월	378.6	26.4	382.0	29.1	16.3	-15.8	2,604.8	999.7
5월	394.1	26.9	385.5	29.1	6.1	-3.8	2,582.0	1,031.4
6월	373.1	16.6	377.7	32.5	34.8	18.2	2,581.0	1,043.4
7월	410.9	36.0	430.3	47.2	2.2	-25.3	2,475.2	1,008.5
8월	373.9	30.6	406.2	37.0	-28.2	-47.1	2,432.0	1,081.8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3년	2.2(3.2)	3.5(3.4)	3.6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5)	2.8(2.6)	3.7	8.1	6.9	7.0	4.69	1,073.6
2006년	0.9(0.3)	2.2(2.1)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3.6)	2.5(3.6)	3.2	8.4	11.2	10.2	5.70	1,713.2
2006년 4월	1.5(1.5)	2.0(1.5)	3.5(3.5)	4.1	6.8	7.4	5.24	1,415.9
5월	2.6(2.1)	2.3(1.7)	3.2(3.4)	8.1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4	7.7	7.3	5.17	1,249.2
7월	1.4(0.9)	2.4(1.9)	3.4(3.5)	6.0	7.7	7.3	5.18	1,278.0
8월	1.7(1.5)	2.7(2.5)	3.4(3.5)	5.3	7.5	7.4	5.10	1,316.1
9월	1.6(1.9)	2.5(2.8)	3.2(3.4)	-0.1	8.9	7.9	5.02	1,356.5
10월	0.4(0.9)	2.2(2.3)	3.3(3.4)	13.2	10.1	8.7	4.93	1,354.0
11월	0.2(0.4)	2.1(1.8)	3.2(3.4)	5.8	11.1	9.4	5.05	1,403.9
12월	0.3(0.3)	2.1(2.1)	3.3(3.3)	6.9	11.4	9.6	5.18	1,418.8
2007년 1월	0.0(0.0)	1.7(1.8)	3.6(3.3)	-13.6	11.3	9.8	5.32	1,379.3
2월	0.1(0.1)	2.2(0.9)	3.7(3.2)	28.1	11.5	9.9	5.28	1,434.9
3월	0.6(0.5)	2.2(1.5)	3.5(3.2)	6.3	11.5	10.2	5.20	1,431.6
4월	1.1(1.2)	2.5(1.9)	3.4(3.3)	7.2	11.1	10.1	5.34	1,517.1
5월	1.4(1.8)	2.3(1.9)	3.2(3.4)	5.9	10.9	10.1	5.49	1,614.9
6월	1.7(2.0)	2.5(1.9)	3.2(3.3)	6.2	10.9	10.4	5.64	1,754.3
7월	1.6(2.2)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0.9(2.1)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1.0(2.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2.2(2.8)	3.0(3.2)	3.0(3.1)	-0.6	10.8	10.4	5.98	2,004.6
11월	3.1(3.2)	3.5(3.2)	3.0(3.2)	5.9	11.3	10.4	6.16	1,924.8
12월	3.6(3.6)	3.6(3.6)	3.1(3.1)	6.7	11.5	10.6	6.73	1,903.6
2008년 1월	4.2(0.6)	3.9(0.5)	3.3(3.0)		12.5	11.4	6.64	1,732.3
2월	5.1(1.5)	3.6(0.8)	3.5(3.0)		13.4	11.6	6.27	1,689.5
3월	6.0(2.9)	3.9(1.8)	3.4(3.1)		13.9	11.9	6.13	1,651.2
4월	7.6(5.1)	4.1(2.4)	3.2(3.2)		14.9	12.7	5.91	1,776.6
5월	9.0(7.1)	4.9(3.2)	3.0(3.2)		15.8	13.1	6.22	1,846.8
6월	10.5(8.8)	5.5(3.9)	3.1(3.2)		15.1	12.7	6.68	1,858.2
7월	12.5(11.0)	5.9(4.6)	3.1(3.2)		14.8	12.1	6.99	1,569.6
8월		5.6(4.4)					7.11	1,537.5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3년	5.5	78.0	-3.2	-4.8	-9.2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4	80.0	1.1	-2.6	7.0	3.7	-3.9	11.1	4.9	14.8
2005년	6.3	79.5	4.2	1.5	1.0	5.9	7.3	4.1	-3.7	7.5
2006년	8.4	80	4.1	6.3	16.2	8.9	9.0	2.6	0.6	4.0
2007년	6.8	80.4	5.3	5.5	21.1	8.6	19.3	6.6	8.4	4.5
2006년 5월	9.8	79.1	6.1	7.6	14.1	9.9	-21.7	-1.6	-6.6	0.4
6월	9.3	80.2	5.7	6.1	36.4	2.2	-6.8	-0.9	-6.4	1.7
7월	1.4	75.0	-0.6	1.3	-0.3	5.2	6.8	-3.1	-2.9	-2.1
8월	10.0	80.1	4.7	3.3	17.4	16.6	15.0	0.8	6.7	-0.2
9월	18.1	82.1	5.3	16.8	37.6	18.7	98.5	13.2	17.2	11.2
10월	4.8	81.4	4.2	2.8	36.2	7.3	-0.2	5.2	17.8	1.3
11월	7.1	80.7	3.6	6.8	14.4	7.7	44.9	4.3	8.4	3.6
12월	2.2	78.8	1.5	3.0	-1.5	4.6	29.8	5.0	8.8	3.7
2007년 1월	8.6	79.1	1.0	10.5	29.2	18.6	9.7	12.9	18.1	11.3
2월	-0.2	79.7	10.6	7.5	20.0	14.5	40.1	9.1	27.0	3.1
3월	3.3	79.3	6.0	6.0	9.3	6.9	32.0	3.0	19.0	-3.3
4월	6.2	80.1	4.0	9.7	3.3	15.6	48.9	7.0	8.4	4.0
5월	5.7	81.0	5.2	8.5	15.6	8.8	5.2	6.2	16.4	1.7
6월	6.6	80.9	3.5	4.6	3.3	11.3	28.8	4.9	11.9	1.2
7월	13.5	80.5	8.9	9.9	35.3	2.2	-14.9	13.2	14.9	10.6
8월	8.8	81.0	5.8	5.7	5.1	3.5	13.4	8.6	5.0	8.2
9월	-3.1	78.6	6.4	-7.1	19.5	-3.7	-9.8	-6.3	-7.3	-6.5
10월	15.9	81.6	6.6	11.6	42.5	7.0	103.8	8.8	-4.6	13.0
11월	7.6	80.6	4.4	2.4	46.7	10.4	36.3	5.9	8.8	2.8
12월	9.4	80.9	2.6	2.9	28.8	10.1	1.4	9.2	3.7	9.8
2008년 1월	11.2	81.8	4.6	8.7	44.4	-1.8	-13.1	10.8	16.8	5.7
2월	10.3	80.3	2.9	2.7	8.3	-1.9	-6.2	3.3	-1.0	2.5
3월	10.3	81.1	4.4	6.3	24.1	0.9	5.3	3.8	5.5	0.8
4월	10.7	82.2	5.4	8.4	17.9	-1.9	-5.2	4.3	2.4	2.5
5월	8.6	80.3	3.0	3.7	3.0	-2.1	18.8	7.7	5.0	6.1
6월	6.6	80.4	-1.0	4.2	6.3	4.4	-23.4	7.4	3.2	5.7
7월	8.6	80.4	3.9	7.2	16.6	10.7	-13.0	10.4	4.4	10.1
8월	9.1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8년 10월 6일

1판1쇄 발행/2008년 10월 1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